

KMI

북한해양수산리뷰

2025년
6월호

발간년월 2025년 6월 30일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조정희 원장 총괄 윤인주 해양안보전략연구실장

감수 한덕훈 글로벌전략연구본부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글로벌전략연구본부 해양안보전략연구실 정다현

TEL +82-51-797-4747 FAX +82-51-797-4759

www.kmi.re.kr

목 차

동향 분석

3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과 향후 전망

김한규(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 차장)

연안 시·군의 '지방발전 20X10 정책' 추진 동향

윤세라(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연구교수)

북한 바다가 양식법 제정과 바다가 양식사업소 건설

진희권(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 연수연구원)

기획 칼럼

30

최근 북한 해군력 강화 움직임과 함의

박용한(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 동향

36

북한 수산업 정책·법·제도와 지속 가능한 협력 방향

조정연(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알기

45

북한에도 어촌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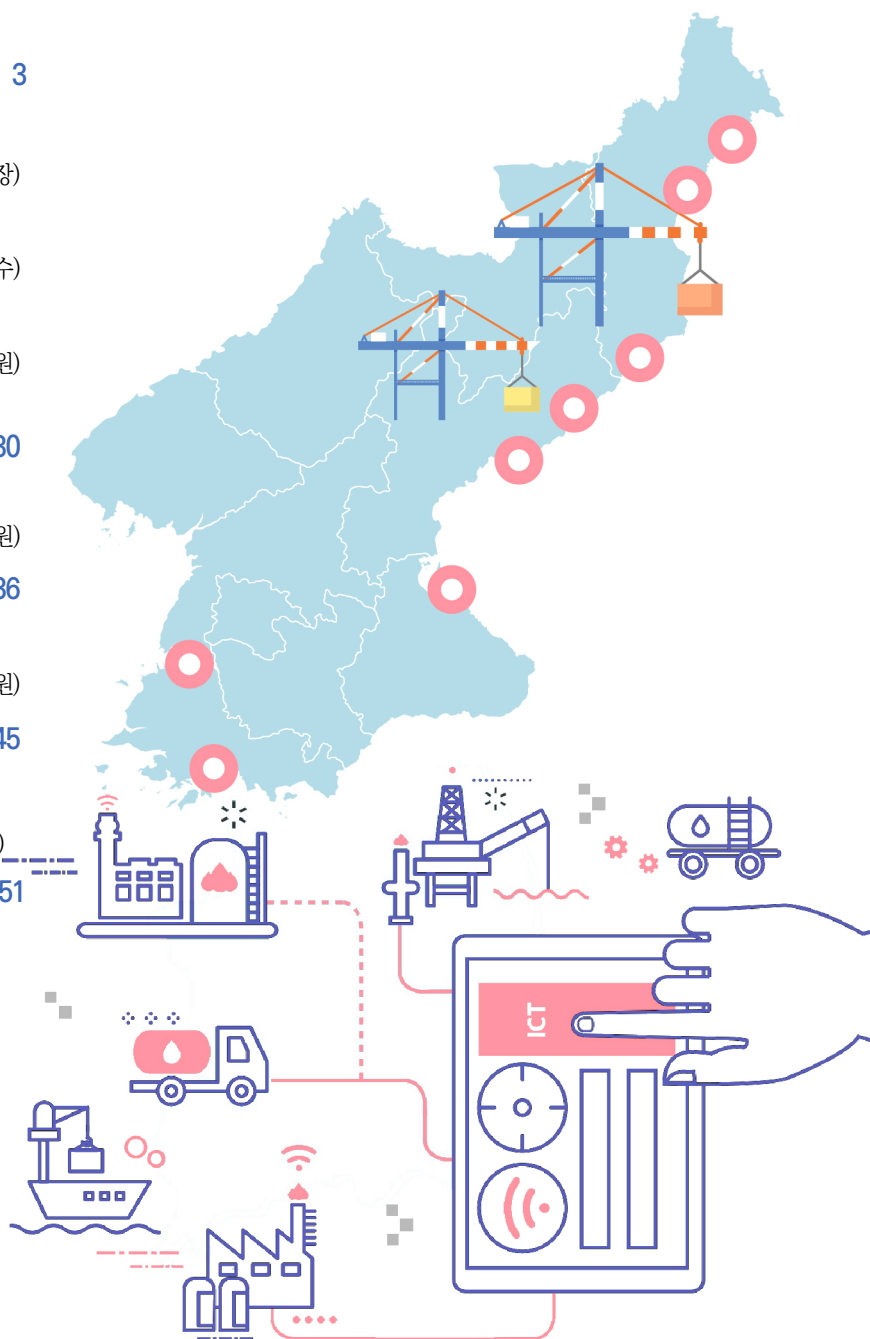
김 혁(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

북한 소식

51

북한 언론 해양·수산 기사 (2025년 4~6월)

NK News 해운·항만 기사 (2025년 4~6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내용 및 전송 문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안보전략연구실
정다현 연구원 Tel_051-797-4747, E-mail_dhj82@kmi.re.kr

※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상기 전화번호 및 메일로 연락바랍니다.

이번 호 소개

2025년 6월호 북한해양수산물리뷰는 북한의 연안 개발과 수산 정책 변화, 해군력 강화 동향을 중심으로 세 건의 동향 분석, 기획 칼럼, 연구 동향, 북한 알기, 그리고 최근 보도 정리로 구성했다.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현지지도를 하며 심혈을 기울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장과 전망, ▲연안 시·군의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바다가 양식법 제정과 양식사업소 건설을 주제로 한 세 건의 동향 분석을 소개한다.

김한규 차장(한국관광공사)은 원산갈마관광지구의 본격 개장과 러시아 관광객 유치를 둘러싼 북한의 정책적 의도를 분석하며, 외래관광 재개 가능성을 평가한다. 윤세라 교수(덕성여자대학교)는 북한이 연안 시·군에서 추진 중인 ‘지방발전 20×10’ 정책의 특성과 전략을 검토하고, 연안 지역만의 정책적 과제와 함의를 도출한다. 진희권 연수연구원(부산대학교 통일한국연구원)은 바다가 양식법 제정과 실포 바다가 양식사업소 건설 추진 배경을 분석하며, 북한의 바다 양식 정책의 향후 성과를 전망한다.

기획 칼럼에서는 박용한 선임연구원(한국국방연구원)이 최근 북한의 해군 현대화 동향과 그 의미를 분석하며, 해양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이어지는 연구 동향에서는 조정연 연구위원(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이 북한 수산업·제도 비교 및 협력 방향을 소개하며,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및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기반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북한 알기에서는 김혁 책임연구원(한국농어촌공사)이 북한 어촌의 특징과 개발 정책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매체 및 NK News 분석을 통해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보도된 북한의 해양·수산·해운·항만 관련 기사를 종합·정리하였다. 북러 교역 확대 및 무기 밀수 정황 등을 포함해 해양·수산 관련 주목할 만한 이슈가 담겨 있다.

이번 6월호는 북한의 연안 개발, 지역 정책, 해양 전략 강화, 대외협력, 그리고 북한 어촌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북한 매체 및 외신 분석을 균형 있게 담았다. 최근 북한의 해양수산 분야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동향 분석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과 향후 전망

김한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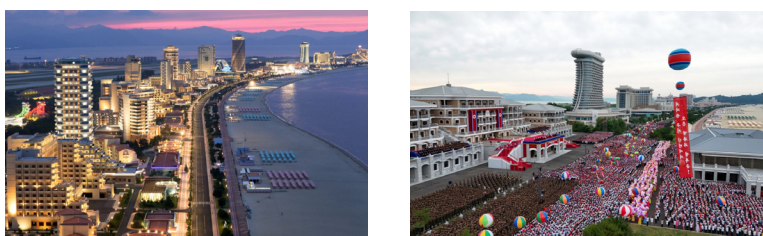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 차장

1.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공을 들여 추진해 온 강원도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6월 24일 준공됐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준공식에 직접 참석하여 ‘당 제8차 대회 결정을 완결 짓는 올해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꼽으며 명사십리 야외 물놀이장, 갈마 모란봉 여관, 명사십리 호텔을 비롯한 관광지구 시설들을 둘러봤다.¹⁾ 이날 준공식에는 딸 주애와 아내 리설주 여사도 함께 했는데, 강원도와 원산시 지역 주민 상당수가 참석했다.

이날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원산갈마지구 모습은 <그림 1>과 같이 화려하고 규모가 상당하다. 총길이 5.5km의 갈마반도 오른쪽 명사십리 해안가를 따라 수십 개의 호텔과 리조트, 편의시설 건물들이 이어져 있다. 20층 내외의 호텔들이 중간중간 자리하고, 각각의 호텔 주변으로는 나지막한 빌라 형태의 리조트가 위치하고 있다.

<그림 1>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전경 및 준공식 모습



출처: 조선중앙통신, 2025.5.26.

시설물 종류로는 ‘모든 조건을 원만히 구비한 해수욕 봉사 시설’, ‘다양한 체육, 오락시설’, ‘사업 및 급양봉사시설’, ‘계절에 구애 없이 동해 명승의 진미를 안겨줄 수 있는 문화생활기지들’이 언급됐다.

동향 분석

휴양지와 모래사장 가운데로는 도로가 길게 뻗어 있는 가운데 가로등 불빛을 받은 야경 모습이 인상적이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처럼 배를 이고 있는 모양의 건물도 있다. 계획 당시 해안광장구역으로 설정된 곳으로 보이는 장소에는 백화점 시설로 추정되는 건물들도 있다. 지난해 말 사진으로 공개한 호텔 내부에는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컨퍼런스 홀, 영화관 시설들을 갖췄다. V자 형태의 외벽 장식이 있는 또 다른 건물 앞에는 대형 버스 8대가 주차돼 있었다. 공간상으로는 20여 대까지도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단체관광객 숙박시설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대규모 관광지구라면 관광객들의 접근성 또한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갈마역이 개건되었을 것이다. 관광지구로의 이동 편의성을 도모할 기차역인 갈마역 리모델링은 지난 6월 12일 완료되어 준공식이 열린 바 있다. 또한 외래객 유치를 위해선 항공편이 핵심일 터기에 2015년 9월 이미 갈마 국제공항 터미널이 완공됐다.

공항은 관광지구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활주로는 3,500m, 3,125m, 500m 등 3개가 있어 지방 공항 치고는 작지 않다. 당장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원산 갈마공항을 연결하는 직항노선 개설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국제공항은 평양 순안공항뿐이지만 원산 갈마공항의 국제 공항화도 고려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2019년 개장 가능성이 재개될 때 북한 측은 중국 여행사들에게도 원산 갈마공항으로의 직항 전세기를 제안하기도 했다.

6월 달의 준공식은 지난해 12월 말 이미 예견된 바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때도 딸 주애와 함께 현지지도를 했는데, 당시 올해 6월부터 운영한다고 보도됐었다.²⁾ 준공시점이 공식화된 이후 물리적·제도적 개장 준비 소식이 다방면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우선 지난달 29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5차 전원회의를 통해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을 채택하였다.³⁾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으나 개장을 앞두고 각종 지원사항을 법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리적인 인프라 정비도 상당히 공을 들였다. 앞서 얘기한 대로 갈마역이 리모델링 됐다. 관광지구 내 시설물 공사도 막바지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 준공식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워터파크의 완공 소식도 전해진 바 있으며, 트램 정류장에는 차량들이 들어서 있고 해변에는 관람석도 설치되

동향 분석

고 있다고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가 전했다.⁴⁾ 실제 준공식과 함께 보도된 사진을 보면 바닷가 모래사장에는 여름철 우리나라 해운대를 연상케 하는 파라솔이 질서정연하게 길게 이어져 있다.

2.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 의미

관광지구의 시작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6월 11일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48호 결의로 공식화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가 그 구상의 시작이었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하게 된 것이 2011년 말이었으니 원산갈마지구는 집권 초기부터 시작된 셈이다.

이후 2016년 착공되었는데 개장은 최소 3차례 연기됐다. 당초 2019년 4월 개장을 목표로 하였으나 연기된 이후 2019년 10월로, 다시 2020년 4월로 연기되었고, 그 다음에는 언제 개장한다는 보도가 없었으나 2024년 말, 2025년 6월 개장한다고 다시 공식화했다.

북한 최고 권력자가 지대한 관심을 표했던 사업이었는데도 이렇게 수차례 연기가 되었다. 공개활동 보도 내역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소 6차례 원산갈마지구를 찾아 현지지도에 나섰다. 2018년에만 5월 및 8월, 11월 세 차례 공사 현장을 찾아 독려했고, 2019년 4월에도 다시 한번 찾았다. 이후 2024년 7월과 12월에도 방문해 자신이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가감 없이 드러냈다. 6월 준공식 참석까지 따지면 최소 총 7차례 현지지도를 한 셈이다.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의 현지지도가 가지는 무게감을 생각하면 이례적이다.

연기 사유가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국제 제재로 인한 자재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2397호에 따르면, ‘모든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 및 여타 금속류의 직간접적인 공급·판매·이전’이 금지됐다. 그에 앞서 4차 핵실험에 따른 2016년 3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2270호에서는 12개 품목의 사치품 수출에 제재가 가해졌다. 이러한 제재로 공사 물품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2020년 1월에 닥친 전대미문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북한은 완전한 고립과 폐쇄를 선택했다. 수출입 자체가 중단되었으니 물리

동향 분석

적으로 공사 진행은 불가능했을 터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개장한 원산갈마지구는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업적을 홍보할 좋은 기회라 여길 법하다. 예견된 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장 행사에 직접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원산갈마지구와 함께 3대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일컬어지는 양덕온천지구(양덕온천문화휴양지), 삼지연관광지구(삼지연시꾸리기) 준공식에 모두 참석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양덕지구와 삼지연지구에도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각각 7회 현지지도에 직접 나섰다.

2025년은 북한에 있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025년)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해다. 지난 2021년 1월 열렸던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8차 당대회)에서는 2016~2020년의 5개년 전략이 실패했다고 공식 인정한 바 있기에 ‘21~’25 계획이 실패했다고 선언하는 것은 너무나 큰 정치적 부담이다. 따라서 올해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과시할 가능성이 크다.⁵⁾ 그런 점에서 원산갈마지구는 평양시 5만 세대 건설, 농촌 살림집 건설 등과 함께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기에 원산갈마지구 개장은 북한 정권에게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강조하고 있는 ‘관광을 통한 경제개발’ 차원에서도 원산갈마지구는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2010년대 이후 관광 분야를 통한 경제개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외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수입 창출은 물론, 관광단지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등을 포괄하고 있다. 그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원산지구와 칠보산 지구를 비롯한 나라의 여러 곳에 관광지구를 잘 꾸리고 관광을 활발히 벌리며 각도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고 특색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조한 것이다.⁶⁾

북한이 관광을 통한 경제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관광목적의 경제개발구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는 모두 28개가 지정돼 있는데 경제개발구법에 따르면 제2조에 ‘경제개발구 유형’으로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를 특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 성격을 포괄하는 경제개발구는 관광개발구 4개를 포함해 총 18곳이나 된다. 이러한 관광을 통한 경제개발

동향 분석

을 강조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원산갈마지구 개장은 그 구체적인 성과로 내세울 만한 것이다.

관련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준공식에서 “갈마반도 개발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여러 지역에 각이한 류형의 유망한 대규모 관광 문화지구들을 최단 시간 내에 건설하는 중대계획을 당 제9차 대회에서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관광을 통한 경제개발 전략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3. 북한의 외래관광 재개 움직임

원산갈마지구 개장은 북한의 외래관광 재개 움직임과 맞물리며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 정권이 공을 들이고 있는 원산갈마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선 외래관광 개방 폭을 넓힐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배경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후 개방 폭을 점차 넓혀 오고 있는 북한 외래관광이 언제 본격적인 확대에 대한 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다. 국제관계와 동기화되고 있는 북한 외래관광 특성상 원산갈마지구 활성화-외래관광 개방 확대-북한 국제관계 회복은 맞물리며 진행될 수밖에 없다.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개방되어 있는 외래관광 대상국은 러시아뿐이다. 코로나 이후 전세계적으로 가장 늦은 시점인 2023년 8월 국제항공노선을 재개하고, 2024년 2월 외래관광을 다시 시작한 국가인 북한은 러시아와의 관광만을 오픈한 상황이다. 보스토크 인투르라는 여행사를 중심으로 모객을 했던 2024년 연간 방북 러시아 관광객 수는 881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이전인 2018~2019년 방북한 러시아인들은 총 6,635명으로 관광목적으로 방북한 인원은 1,447명이었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방북 규모지만 그나마 2025년 원산갈마지구 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러시아 지역이 거의 유일한 상황이다. 상기 보스토크 인투르 여행사가 올초 공개한 데 따르면, 오는 7월 7~14일 7박 8일 일정으로 원산갈마지구 단체상품을 판매했다. 8월에도 4~11일, 18~25일 두 차례 일정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실제로 러시아 타스 통신은 러시아의 원산갈마지구 첫 관광단체가 7월 7일 출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⁷⁾ 관련해서 준공식에 초청된 외부 인사로는 러시아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원들이 유일했는데 그만큼 북한은 원산갈마지구 외래 관광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동향 분석

이렇게 북러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 배경은 2020년대 북러 관계의 산물로 해석 가능하다. 북한의 관광은, 특히 인바운드 관광은 북한이라는 사회주의국가 특성상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영역이라기보다는 북한의 국내외 정치, 국제관계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코로나 이후 북한의 첫 번째 정상회담 국가는 러시아였다. 2023년 9월 정상 회담을 가졌고, 2024년 6월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의무가 부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들어 북한의 외래관광 개방 폭이 좀 더 넓어졌다. 우선 나선관광이 짧게나마 재개됐다. 서구인들 중심으로 북한관광을 진행하는 고려투어스와 영파이어니어투어스 등의 여행사는 올해 2월 20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나선경제특구 투어를 진행했다. 코로나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이 상품은 2주 정도만 단기간에 걸쳐 진행된 뒤 돌연 3월 5일 중단됐고, 이후 6월 현재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한편 중국인을 대상으로 모객했던 나선지역 상품은 당초 2월 24일 출발일이었으나 출발 직전 최종 취소됐다. 취소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중국 여유국이 여행과 홍보를 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오며⁸⁾ 중국 당국이 허용하지 않았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북한 당국이 나선관광을 다시 중단한 배경엔 이러한 중국 관광이 성사되지 않은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외래관광객의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특히 변경관광에서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의 북한관광이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관광 재개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코로나 이전 북한 외래관광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내외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북한 외래관광객은 관광 목적 입국객으로만 따지면 30만 명 내외, 접경지역 입국객 수까지 따지면 120만 명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나선관광을 다녀온 관광객들이 맨살의 북한 사정을 그대로 SNS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기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국제마라톤(‘만경대상국제마라손경기대회’) 재개는 북한 당국의 관광 재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코로나 이후 매년 재개 가능성만 제기되다 2025년 6년만에 드디어 재개된 평양마라톤

동향 분석

에는 45개 국가 외국인 200여 명이 참가했다. 북한이라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세계 10대 이색 마라톤 대회로 선정되기도 했던 평양마라톤은 2014년부터 외국인 관광객 참가가 허용됐다. 코로나 직전 대회였던 2019년 제30차 대회에는 외국인 참가 인원이 950여 명에 달했다.

4. 향후 전망

원산갈마지구는 2020년대 북한 외래관광 활성화의 변곡점으로 기억될까 아니면 원산의 ‘류경호텔’이 될까. 류경호텔은 평양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로 외관은 완성했지만 내부 인테리어를 마치지 못했고,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북한 당국은 물론 우리 남측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도, 국제사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우선 국제관계나 남북관계 등 관광 외적인 것은 차치하고 관광단지의 그 규모부터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날 보도를 통해 원산갈마지구 동시 수용 가능 인원이 “근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도 사진과 위성사진, 당초 계획 구성도 등을 감안했을 때 객실 수는 약 2만실에 숙박 가능 인원은 3만 7,000명 정도로 추정된 바 있다. 추정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갈마지구는 해안광장구역을 가운데로 해서 양쪽에 명사십리 휴양구역 1과 2로 구성돼 있다. 전체 구역에 있는 호텔 개수는 12개, 콘도는 27개 동, 펜션과 민박집이 각 1개 동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건축 연면적에 남한 숙박시설 사례를 기준으로 부대시설 비율, 객실당 평균 숙박 인원 등을 대입해 계산해 보면 대략 이러한 수치가 나왔다.

그렇다면 수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선 어느 정도 관광객이 방문해야 할까. 숙박시설의 운영비용과 고정비용, 객실 가격 등 기초 사항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숙박률이 60% 이상으로 유지되면 수익 분기점을 넘어간다고 상정해 보자. 객실당 평균 숙박 인원을 1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연간 146만 명이 방문해야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이 많은 관광객들이 어디서 올 수 있을까. 당장 단기적으로는 북한 내국민들이 주요 방문객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 외래관광이 본격 재개되지 않았기에 기본 운영을 위해선 내국민들의 관광이나 방문이 필수일 수밖에 없다. 북한도 준공식 보도를 하며 “원산갈마지구는 7월 1일부터 국내 손님들을

동향 분석

위한 봉사를 시작하게 된다”며 내국인 관광지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북한에서도 국내관광이 태동한 지 꽤 됐으니 갈마지구를 찾는 북한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2015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조선에서 관광이라고 하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주목을 받기 마련인데 인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여행도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⁹⁾

북한이 이렇게 국내관광 활성화에도 신경 쓰는 이유야 여러 가지겠으나 북한 주민들이 보유한 외화나 자금을 소비로 연결하거나, 돈주들이 돈을 사용토록 하여 국내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힘으로 만들겠다는 가장 기초적인 경제순환논리도 당연히 그 맥락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관광단지를 국내 관광용으로만 활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외래객 유치도 치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는 핵심일 것이다. 2024년까지 미묘한 엿박자를 보였던 중국과의 관계가 2025년 들어 다소 유화적인 흐름도 보인다는 것은 북한 당국이 원산갈마지구 때문에 취하는 스탠스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원산갈마지구 활성화를 위해선 필수적인 여건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 이렇게 유치할 수는 있을까. 아무리 관광이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비켜 있다고는 하지만 과거 전례를 감안한다면 현실 가능한 상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산갈마지구까지 이동하는 교통수단도 감안해야 한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관광객 송출국가는 어디일까. 현실적으로 가장 접근 가능한 대상국은 한국일 수밖에 없다. 갈마지구가 성공하는 데 있어 한국의 위치는 필수적이다. 이동 경로는 물론이고 과거 남북 관광을 운영한 경험도 있다. 관광객 규모만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남측·중국·북한 내부 관광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된다면 원산갈마지구의 수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실에 천착한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는, 최소한 단기간에 달성 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이미 북한은 2023년부터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남북 관계를 새로 규정했다. 기존의 동족 관계는 물론이고, 통일정책 또한 대폭 수정하고 있다. 그에 앞서 2019년에는 금강산의 남측 시설은 ‘너저분한’이

동향 분석

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최근까지 모두 철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했지만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점치기에는 설부르다. 남북 간 대화의 문은 닫혀 있는 상태이고, 지난 몇 년간 남북관계는 최악의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남북 간 최소한의 신뢰 관계가 회복되어야 남북교류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회복 단계가 지나간 뒤에야 2008년 이후 중단된 남북관광을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광이 테이블에 올라갈 때 원산갈마지구는 남북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좋은 협력 테마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그때까지 북한 원산갈마지구가 ‘자력갱생’할 수 있느냐 여부도 중요하다. 원산갈마지구가 대규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원산갈마지구 모든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일부 시설만 활용하는 선택을 북한이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어떤 방향이든지 북한으로 서도 우리로서도 원산갈마지구의 ‘류경호텔’화는 막아야 할 미래이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사회주의문명개화의 새 경관을 펼친 동해기슭의 관광명소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 성대히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5.6.26.
- 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갈마해안관광지구의 완공된 주요봉사망들을 돌아보시었다,” 『노동신문』, 2024.12.31.
-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5차전원회의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5.5.30.
- 4) “北원산 갈마관광지구 개장 임박...”블라디-원산갈마 직항 검토“, 『연합뉴스』, 2025.5.20.
- 5) 현대경제연구원, “2024년 북한경제 평가 및 2025년 전망: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현안과 과제』 (2025.1.6.).
- 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노동신문』 2013.4.2.
- 7) “러, 北 원산갈마관광지구에 내달 7일 러 관광단 첫 방문.” 『연합뉴스』 2025.6.26.
- 8) “5년만의 중국인 北단체관광 무산되나...”출발 당일에 못 떠나“, 『연합뉴스』 2025.2.24.
- 9) “마식령스키장 방문객 많을 땐 하루 2천 명<조선신보>.” 『연합뉴스』 2015.1.23.

동향 분석

연안 시·군의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동향

윤세라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연구교수

1. 김정은 시기 지방경제 발전 추진과 ‘지방발전 20×10 정책’

‘지방발전 20×10 정책’은 매년 20개 지역에 10년 동안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해서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지방 생산체계를 정상화하고 북한 전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지방경제 발전은 1950년대 이후 꾸준히 강조되었지만,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은 국가적인 투자와 지원이 뒷받침되고 10년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¹⁾ 북한 당국은 국가적인 지도사업체계 아래 자금, 자재, 노동력 일부를 지원한다. 모든 것을 매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 초기에 필요한 중요 자원을 지원하고, 건설 이후에는 지방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공업 발전정책인 만큼 정책 시행 첫해에는 각 지역에 식료품, 일용품, 의류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건설에 집중하였다. 여기에 두 번째 해부터는 보건시설, 복합문화시설, 양곡관리시설 등도 함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연안 지역의 발전을 위해 2024년 중반부터 바닷가 양식사업소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지방공업을 중심으로 지방경제 전반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 선정 기준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1차년도 사업지는 경공업과 농수산업에 일정 정도 기반이 있는 지역이나 건설에 필요한 교통 및 전력 인프라가 비교적 갖추어진 곳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보다 외곽 지역으로 확장되어 지역적 균형을 맞추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²⁾

사업은 각 지역의 특산물 등 자연지리적 조건을 활용하여 발전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1950년대 지방경제 건설 시기부터 산, 바다 등 지역의 특색에 맞게 지방경제를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다. 이번 사업 추진에서도 김화군 같은 모범사례가 있지만 똑같이 따라 하는 것을

동향 분석

지양하고, 지역에 맞게 적용하여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연안 지역의 경우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북한은 “해안선이 길어 바다를 낀 시, 군이 적지 않으며 우리 바다는 깨끗하고 생태조건이 아주 좋다면서 이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여 해안지역들에서 바다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바닷가 양식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연안 지역의 시, 군을 중심으로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추진 현황과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차년도, 2차년도를 나누어 각 지역의 개요와 함께 사업 추진 동향을 수산업 중심으로 살펴본다. 지역의 개요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을 참고하였으며, 사업 동향은 북한의 각종 매체 내용을 활용하였다.

2. 1차년도(2024년) 정책 추진 현황

북한은 약 3,000km의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해안선을 따라 연안 지역에 해당하는 시, 도는 서해로는 평안북도, 평안남도, 남포특별시, 황해남도, 동해로는 나선특별시,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가 있다.

‘지방발전 20X10 정책’ 1차년도는 서해 쪽에는 평안남도 속천군, 남포특별시 온천군이, 동해 쪽에는 함경북도 경성군, 함경북도 어랑군, 함경남도 함주군, 함경남도 금야군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동해안의 사업지는 해안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함경도에 집중되어 있다.

1차년도 사업지 모두 2024년 2~3월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되었다. 대부분 식료공장, 일용품공장, 옷공장이 건설되었으며, 이 중 연안 지역은 식료공장을 통해 수산물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식료공장 외에 수산물가공공장이 따로 건설된 곳은 어랑군이 유일하다.

주목할 것은 2024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된 바닷가 양식사업소 건설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7월 신포시 풍어동 지구를 방문하여 신포시를 바닷가 양식업의 표본기지로 꾸릴 것을 결정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4년 초 연안 시, 군들이 바다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를 당중앙위원회가

동향 분석

직접 챙기도록 하여 시범창조사업을 준비하였고, 전형적인 해안지역이면서 주민 수에 비해 경지면적이 적은 함경남도 신포시를 시범단위로 정해 준비 사업을 추진했다. 7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 소 건설준비사업을 현지지도하면서 신포시는 바닷가 양식의 표본이 되어 적극 추진되었다.³⁾

서해안 지역: 남포시 온천군, 평안남도 속천군

서해에 접해있는 온천군은 어업, 양어업 등 수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오래전부터 곤쟁이 젓갈로 유명하다. 서해곡창지대로 알려진 속천군은 서쪽으로 서해와 접하고 있으며, 벼농사와 과수업이 발달해있다.

온천군과 속천군의 지방공업공장은 2024년 3월에 착공하여 2025년 1월에 준공되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식료품, 일용품, 옷가공제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건설되었다.⁴⁾ 새로 건설된 온천군과 속천군 식료공장에서는 말린 망둥어, 말린 송어 등 수산물가공품과 조개젓, 곤쟁이젓, 멸치젓 등 젓갈 제품이 새롭게 생산되었다고 알려진다. 이 제품들은 1차년도에 건설된 시, 군 지방공업공장들의 제품품평회에서 질적으로 중앙 경공업 제품 수준으로 평가받았다.⁵⁾

온천군은 공장 건설 과정에서 흥남대성수산종합기업소를 통해 수산물 가공, 젓갈 제품 생산 부문 기능공양성을 위한 기술을 전습 받았으며, 준공 이후 각종 수산물을 지역의 대표 제품으로 대량 생산하기 위한 준비 모습이 보도되기도 했다.⁶⁾

속천군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이 시행된 2024~2025년에 김덕훈 내각 총리(24년 2월, 24년 5월, 24년 7월), 최룡해 위원장(25년 3월), 박태성 내각총리(25년 4월)가 현지요해 차원에서 방문하였다. 김덕훈 내각 총리는 속천군의 농장, 양정사업소, 지방공업공장 건설장 등을 방문하고, ‘지방발전 20X10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 설계분과를 찾아 지방공업공장들의 설계를 챙기기도 했다. 지방공업공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부지와 규모, 생산 능력, 합리성, 원료기지조성 문제, 공장 운영에 필요한 대상 설비 생산 문제를 확인하고 토의하였다. 준공 이후에는 최룡해 위원장이 속천군을 찾아 지방공업공장, 산림경영소, 약전농장 등을 둘러 공장 일군들을 격려하고 원료보장대책, 과학기술강의, 기술전습, 생산문화 및 생활문화 확립을 통해 공장의 실질적 운영 강화를 주문하였다. 박태성 총리는 농장, 원료기지사

동향 분석

업소를 찾아 생육상태 개선과 토지이용률 재고를 강조했다.⁷⁾

동해안 지역: 함경북도 어랑군, 함경북도 경성군, 함경남도 금야군, 함경남도 함주군

어랑군은 어대진제염소, 어랑영예군인어구공장, 어대진수산사업소, 어대진대성수산사업소 등 수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천해양식을 통해 다시마, 미역 등이 생산되며, 자연호수를 이용하여 담수 양어를 하고 있다, 수산업 외 주요 산업은 농업이다. 어랑평야를 통해 쌀이 생산되고 논과 밭이 고루 구성되어 있다.⁸⁾ 어랑군은 2024년 3월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2025년 1월 31일에 준공하였으며, 현대적인 수산물가공공장과 식료공장, 일용품 공장이 건설되었다.⁹⁾ 식료공장 외에 따로 수산물가공공장에 세워진 것은 어랑군이 유일하다. 수산물가공공장은 바다에 인접한 조건을 활용하여 명태, 대구, 도루묵, 가자미, 멸치, 조개 등을 말린 제품과 냉동제품, 식혜, 젓갈품 등 수산물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다.¹⁰⁾ 어랑군에는 바닷가 양식과 수산물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원료보장의 중요성과 원료기지 농사과학화가 강조되고 있다.¹¹⁾ 수산물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단위에서 어류별 가공방법, 젓갈품 생산방법 등에 대한 실기 교육을 진행하고, 함주군 등과 함께 국가과학원 등 중앙 과학연구기관 과학자와 함께 식료가공기술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¹²⁾

경성군은 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있다. 하천유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한 평야 지대에는 농업이 발달하였으며, 양질의 고령토와 석탄 자원이 풍부하여 도자기 생산으로 유명하다.¹³⁾ 14년째 지지부진한 염분진해안공원지구 건설은 제2의 갈마해안관광지구로 점쳐지기도 하는 곳이다.¹⁴⁾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따라 2024년 3월 착공된 지방공업공장은 2025년 1월에 준공되었다.¹⁵⁾ 산과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료기지를 조성하고, 공장에서는 구기자 단물, 사탕, 과자, 젓갈품 등 식료품과 필수품이 생산되고 있다.¹⁶⁾

금야군은 동쪽으로 동해를 접하고 있으며, 넓은 금야평야와 풍부한 지하자원을 중심으로 농업, 수산업, 광공업이 발달하였다. 해안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어 김정은 위원장은 2024년 7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사업 현지도 중 금야를 포함한 해안 도시의 관광화 추진을 언급하기도 했다.¹⁷⁾ 금야군의 지방공업 공장은 2024년 3월에 착공하였다. 2024년 4월에는 김

동향 분석

덕훈 총리가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공사속도와 원료기지 조성을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준공은 2025년 2월로, 금야군 옷공장, 일용품공장, 식료공장이 건설되었다.¹⁸⁾ 평야지대와 해안을 끼고 있는 군의 특성에 따라 금야군 식료공장은 다양한 기초식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준공식 당시 금야군의 이름으로 소문난 수산물가공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각종 수산물을 원료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연구사 및 기술사와 협조하고 있는 과정이 보도되었다.¹⁹⁾

남동쪽이 동해와 접해있는 함주군은 다른 지역과 달리 해안과 닿아있는 길이가 약 26km로 짧은 편이다. 함주군 대부분은 산악지대이며 성천강 연안과 해안지대는 비교적 평탄하여 거주지역과 더불어 벼농사가 진행되고 있다.²⁰⁾ 2022년 연포온실공장이 건설된 지역이다. 2024년 3월 착공 이후 2025년 1월 준공된 함주군 지방공업공장은 건설 과정에서 김덕훈 총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각각 2024년 4월, 8월에 현지지도로 방문하였다. 함경남도 지방공업공장 건설장 등을 현지지도 한 김덕훈 총리는 공사 속도와 품질을 보장할 것과 원료기지 조성을 계획적으로 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원료기지 조성 활성화 사례에서 함주군이 사례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이 질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²¹⁾ 준공된 식료공장, 일용품공장, 옷공장을 통해 기초식품, 당과류, 생활필수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함주군 식료공장에서는 지역 특산물인 모시조개가 냉동제품으로 생산되고 있다.²²⁾ 식료가공기술은 국가과 학원에서 현장기술학습 등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²³⁾

바닷가양식사업소: 함경남도 신포시

2024년 7월 바닷가 양식 사업의 새로운 표본기지가 된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 아래 빠르게 건설이 진행되었다. 사업소 건설은 인민군대에 위임하여 진행되었으며, ‘지방발전 20×10 비상설추진위원회’ 안에 별도로 분과를 조직하여 바닷가 양식사업소 관련 사업을 관할했다.²⁴⁾ 중앙추진위원회에서는 성, 중앙기관과의 연계하에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자재 등을 확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건설이 추진되었다.²⁵⁾ 11월에는 총공사의 70% 수준으로 진행되고, 100정보로 조성된 양식장에는 가리비와 다시마 시범 양식을 진행하였다.²⁶⁾ 12월 준공된 바닷가 양식사업소는 가리비 가공장, 초급동실, 종합지휘실, 제품건본실 등으로 꾸러졌다.²⁷⁾

동향 분석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설 준비사업부터 건설 현장, 준공식까지 찾아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나아가 “신포시에서 대규모 양식의 새 경험이 창조된 것은 장차 바다가양식을 주되는 영역으로 하여 나라의 수산업을 재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신심을 주고 있다”며 향후 연안 지역 발전 추진과 국가 수산업 재건을 강조했다.²⁸⁾

2025년 5월에는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에서 첫 바다나물(다시마) 수확 소식이 전해졌으며, 6월에는 김일성종합대학을 통해 검증된 통합경영정보체계가 성과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보도되는 등 지속하여 운영을 확장하고 있다.²⁹⁾

<그림 1>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함주군, 신포시 현지지도



출처: (좌) <https://www.news1.kr/photos/6855325> (우) <https://www.news1.kr/photos/7003335>

3. 2차년도(2025년) 정책 추진 현황

2025년 ‘지방발전 20×10 정책’ 2차년도 사업지 중 연안 지역은 함경북도 신포시, 평안북도 염주군, 황해남도 장연군이다. 평안북도와 황해남도는 연안 지역 중 1차년도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이다. 이로써 1~2차년도를 종합해보면 강원도와 나선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연안 시, 도급 지역에 사업지가 골고루 배치되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기에 이루어진 배치로 분석된다. 사업지 모두 2025년 2~3월에 착공하여 6월 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진행 중이다. 공장에서 생산 예정인 상품 등 공장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2024년 12월)에서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에 이어 또 다른 시범사업으로 다른 지역에 바닷가 양식 사업소를 건설할 과업이 제시되었고, 최종적으로 2025년에는 함경남도 락

동향 분석

원군에 신규 건설이 시작되었다.

서해안 지역: 평안북도 염주군, 황해남도 장연군

“벌방군(평야지대)으로 온 나라에 소문났지만 내놓고 자랑할만한 특산물 하나 없었던” 평안북도 염주군은 지명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주요 소금 생산지이다. 군 대부분 지역이 해안평야지대로 공업, 농업, 수산업이 발달하여 있다.³⁰⁾ 2025년 2월 착공한 지방공업 공장은 3월 기초굴착, 기초 및 골조 콘크리트 작업을 진행하고, 6월 골조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³¹⁾ 원료기지 확보를 위해 비경지를 개간하고 원료확보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³²⁾

황해남도 장연군은 남대천 유역의 광대한 평야를 중심으로 한 농업과 서해안에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업 등이 발달한 지역이다.³³⁾ 2025년 3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6월 골조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다.³⁴⁾ 기술자, 기능공을 선발하여 기술 전습을 진행하고, 원격교육체계를 활용하여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는 등 기술 역량 재고를 진행하고 있다.³⁵⁾

동해안 지역: 함경남도 신포시

신포시는 2024년 바닷가 양식사업소가 건설된 이후 2차년도 사업지가 되어 추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건설된다. 2025년 2월 착공 소식이 알려진 후 현재 원료기지 토지 개량 및 지력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6월 현재 기본적인 골조공사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³⁶⁾ 공장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 기능공을 양성하기 위해서 기술 전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³⁷⁾

바닷가 양식사업소: 함경남도 낙원군

착공식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낙원 군 바닷가 양식사업소는 빠르게 건설이 진행 중이다.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 준공식에서 “앞으로 건설될 바닷가 양식기지들은 마땅히 신포시의 것보다 더 선진적이어야 하며 지역특성에 철저히 부합되면서도 지방경제의 발전을 실속있게, 전망성 있게 담보하는 것으로 되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은 낙원군을 “아직 누구도 목격한 적이 없는 희한한 어촌으로 일떠 세우면 그것이 곧 우리 당이 실행하는 지방발전정책의 정당성과 전망성에 대한 직관으로 낙원군의 장래전변을 상징하는 표본으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낙원군의 부지도 자신이 직접 골랐으며, 사업소 건설

동향 분석

과 함께 해안지대 특성이 반영된 살림집까지 완벽하게 건설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구의 어촌마을을 선물하자고 언급했다.³⁸⁾

당중앙위원회는 2025년 초부터 적지 확정, 건축설계 등의 문제를 검토하여 대책을 세워 사업소 건설을 준비했으며, 본격적인 건설은 ‘지방발전 20X10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 주도 아래 추진되고 있다. 기초굴착, 지대 정리, 작업도로 확장, 기초공사 등이 3~4월에 마무리 되고, 기술기능수준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양식 기술과 방법을 도입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³⁹⁾

<그림 2> 낙원군 바닷가양식사업소 착공식과 조감도



출처: <https://www.news1.kr/photos/7133807>

4. 정책 추진 동향 종합

연안 지역의 2024~2025년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동향을 살펴본 결과, 지역적 분포는 비교적 고르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강원도와 나선특별시를 제외하고는 각 시, 도에 1개 이상의 사업지가 선정되었다. 북한의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해안선이 길고, 동해안 해안선에 접한 지역이 대부분 함경도인 점을 고려하면 함경도에서 2개 이상 지역에 사업이 추진된 것은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한 선택이었다고 보인다.

동향 분석

<표 1>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연안 지역 추진 현황(2024~2025)

시, 도	군(추진연도)	시, 도	군(추진연도)
평안북도	염주군(2025)	나선 특별시	-
평안남도	속천군(2024)	함경북도	경성군(2024), 어랑군(2024), 함주군(2024), 금야군(2024), 신포시(2024*, 2025), 낙원군(2025*)
남포 특별시	온천군(2024)	함경남도	
황해남도	장연군(2025)	강원도	-

*는 바닷가 양식사업소 추진 지역

출처: 저자 작성

'지방발전 20×10 정책'과 더불어 바닷가 양식을 위한 건설이 추진된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마땅한 외부 자원 투입이나 대외 환경 개선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처지에서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과를 낼 방법을 고민했을 것으로 보인다. 내륙의 자원을 활용하기엔 이미 한계에 도달했을 것이며, 바다의 자연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수산업은 지방 자체에서 수산물의 확보, 보관, 가공, 생산, 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당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했을 것이다. 또한, 서해보다는 동해가 수산자원 확보나 바닷가 양식에 유리한 조건이기에 동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2차년도는 건설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1차년도 사업지에서는 수산물 가공품, 젓갈 제품 등이 생산되고 있고, 곤쟁이, 모시조개 등 지역 특산물도 적극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 일부 제품은 중앙 경공업에서 생산한 제품과 질 측면에서 밀리지 않을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에서는 올해 5월 다시마 양식 수확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연안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건설 이후 지속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지에 대해 여러 한계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결과를 분석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첫해는 중앙이 건설, 설비, 원료 등을 공급하여 진행되지만, 그 이후로는 지방 자체에서 운영해야 하는 구조에서 과연 얼마나 성과가 지속될 지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에는 전력과 같은 기본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 문제도 포함된다. 또한, 기존 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한다는 취지에서 보건시설, 복합문화시설, 양곡관리소 등 사업 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한지도 의문이 남는다. 더욱이 이 정책이 10년이라는 장기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성과 대부분이 단기적 성과로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동향 분석

지방경제에서 수산업은 주민들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산업 뿐만 아니라 공업 수산 원료를 보장하여 지방공업을 강화하는 데에서도 역할을 한다. 바닷가 양식 사업은 앞으로의 북한 수산업 발전을 책임질 영역으로 강조되기도 했다. 한계는 존재하겠지만 이 사업을 통해 지방의 수산업 생산 기반과 역량이 조금이라도 강화되기를 기대해본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윤세라, “북한 ‘지방경제’에 관한 연구: 제도, 시장화, 재정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24), p. 65.
- 2) 김수정,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분석과 전망,” KIET 산업경제, 2024년 10월호, 2024, 산업연구원; 주원 · 강성현 · 이해정,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 분석과 전망,” 한국경제주평, 963호, 2024, 현대경제연구원; 강성현 · 이해정,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2차년도 사업 분석 및 시사점,” 현안과 과제, 25-04호, 2025, 현대경제연구원.
- 3) 노동신문(2024.7.16.).
- 4) 조선중앙통신(2024.3.7.), 노동신문(2025.1.9.), 노동신문(2025.1.21.).
- 5) 조선신보(2025.4.16.), 민주조선(2025.5.9.).
- 6) 조선신보(2024.6.11.).
- 7) 노동신문(2024.2.20), 노동신문(2024.5.7), 노동신문(2024.7.10), 노동신문(2025.3.23), 노동신문(2025.4.1).
- 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5918>, 산업연구원 북한 산업 · 기업 DB <https://nkindustry.kiet.re.kr/> (최종검색일: 2025년 6월 25일).
- 9) 노동신문(2024.3.7.), 노동신문(2025.2.1.).
- 10) 노동신문(2025.3.24.).
- 11) 노동신문(2025.2.1.), 노동신문(2024.4.4.).
- 12) 노동신문(2025.2.24.).
- 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2550> (최종검색일: 2025년 6월 25일).
- 14) 노동신문(2024.7.18.), 노동신문(2024.9.8).
- 15) 노동신문(2024.3.7.), 노동신문(2025.1.13.).
- 16) 노동신문(2024.6.5.), 노동신문(2025.1.13.), 노동신문(2025.2.4.).
- 17) 노동신문(2024.7.1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7891> (최종검색일: 2025년 6월 25일).
- 18) 노동신문(2024.3.11.), 노동신문(2024.4.2.), 노동신문(2025.2.4.).
- 19) 노동신문(2025.2.4.).
- 2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2235> (최종검색일: 2025년 6월 25일).
- 21) 노동신문(2024.3.11.), 노동신문(2024.4.2.), 노동신문(2024.6.5.), 조선중앙통신(2024.9.2.).
- 22) 노동신문(2025.1.19.), 노동신문(2025.3.24.).
- 23) 노동신문(2025.2.24.).
- 24) 노동신문(2024.7.16.).
- 25) 조선중앙통신(2024.10.4.).
- 26) 노동신문(2024.11.26.).
- 27) 조선신보(2025.2.17.).
- 28) 노동신문(2024.12.30).
- 29) 조선중앙통신(2025.5.19.), 민주조선(2025.6.19.).
- 30) 노동신문(2025.2.2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7148> (최종검색일: 2025년 6월 25일).
- 31) 조선중앙통신(2025.3.26.), 민주조선(2025.3.26.), 민주조선(2025.6.1.).
- 32) 노동신문(2025.6.2.), 노동신문(2025.6.14.).
- 3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8682> (최종검색일: 2025년 6월 25일).
- 34) 노동신문(2025.3.1.), 노동신문(2025.5.27.), 민주조선(2025.6.1.).
- 35) 노동신문(2025.3.14.), 노동신문(2025.3.20.).
- 36) 노동신문(2025.2.26.), 노동신문(2025.3.20.), 민주노선(2025.6.1.).
- 37) 노동신문(2025.3.10.).
- 38) 노동신문(2025.2.15.).
- 39) 노동신문(2025.2.15.), 조선중앙통신(2025.3.26.), 노동신문(2025.4.11.), 민주노선(2025.6.1.).

동향 분석

북한 바다가 양식법 제정과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

진희권

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 연수연구원

2024년 12월 28일, 북한 함경남도 ‘신포시 바다가 양식사업소’ 준공식이 진행되었다. 직접 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준공 기념 연설에서 ‘신포시 바다가 양식사업소’ 준공의 의미와 향후 북한 수산업 정책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해당 연설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면서 북한의 최근 ‘바다가 양식사업소’ 건설과 ‘바다가 양식법’ 제정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1> 신포시 바다가 양식사업소 준공식 관련 사진



*자료: 노동신문, 2024년 12월 30일,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 성대히 진행”.

동향 분석

‘신포시 바다가 양식사업소’는 지방경제 발전의 담보이자 수산업 구조 쇄신의 단초

기념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에서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는 지방공업혁명”의 역사적 위업을 강력히 실행해 나가는 데서 ‘신포시 바다가 양식사업소’ 준공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바다 양식을 중심으로 “수산업의 구조를 쇄신”하고, “나라의 수산업을 재건하고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며, ‘신포시 바다가 양식사업소’ 건설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도 양식사업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¹⁾ 결론적으로 ‘신포시 바다가 양식사업소’ 건설은 조선노동당의 지방공업혁명 정책의 일환이며, 북한 수산업 정책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최근 북한의 ‘바다가 양식법’ 제정과 ‘바다가 양식사업소’ 건설의 의미를 분석한다.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북한이 사용하는 ‘바다가 양식’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양식이란 수산 동식물을 인공적으로 기르는 활동을 뜻하며, 생산 수역에 따라 내수면·해수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양어와 양식을 구분해 사용하고 있는데, 물고기를 기르는 경우 양어, 물고기 외 바다 동식물을 기를 때에는 양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북한 수산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에서도 양어와 양식을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신포시 바다가 양식사업소’는 어류 외 해조류·조개류 등의 바다 동식물을 양식하는 시설이다.

인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2024년 1월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 인민회의(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조선노동당의 주도 아래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매년 20개 군에 건설하여 10년 이내에 전국의 모든 시·군, 다시 말하여 전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비약한다²⁾는 내용의 ‘지방발전 20×10정책’ 추진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정책을 주관하는 ‘지방발전 20×10 비상설추진위원회’를 중앙(’24.1.30)과 각 도(’24.2.3.)에 설치하고, 공장건설 대상 시·군도 확정해 공개했

동향 분석

다.('24.2.3.)³⁾ '지방공업공장' 건설은 중앙에서 소요 자금·자재·설비를 제공하고, 군대에서 공장건설 인력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분담하며, 운영 책임은 지방이 지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⁴⁾

'신포시 바다가 양식사업소' 또한, '지방발전 20×10정책'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다. 2024년 2월에 발표된 20개 건설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양식사업소' 건설이 추진되었다. 북한 언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방발전 20×10정책'의 일환으로 "바다를 낀 시, 군들이 바다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자기 조건에 맞게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는 시범 창조 사업을" 특별지시한 데 따라 "전형적인 해안지역이며 주민 수에 비해 경지면적이 적은 함경남도 신포시가 시범단위로 정해졌다"고 한다.⁵⁾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현대적인 바다가 양식기지 건설을 강력하게, 실속있게 내밀어 전국 도처에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창조적 모범을 만들어 낼" 것을 지시하고, '지방발전 20×10 비상설추진위원회' 내에 '바다가 양식사업소' 건설을 전담하는 분과 조직도 지시했다고 한다.⁶⁾ 이와 같은 조치에 따라 2025년에는 함경남도에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25.2.14. 착공식)⁷⁾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을 목표로 '지방발전 20×10 정책'에 국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안 지역에는 '바다가 양식사업소' 건설을 주요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그 시범사업으로 '신포시 바다가양식사업소'가 건설되었으며, 해당 '양식사업소'를 표본으로 이를 전국 연안 시, 군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수산업 생산량의 특징은 장기 하락, 해조류 비중 과다⁸⁾

이제, 북한 수산업 정책의 측면에서 '바다가 양식법'과 '바다 양식사업소' 건설을 들여다보기로 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신포시 바다가 양식사업소' 준공 기념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수산업 구조 쇄신 및 재건과 발전 등을 언급했다. 해당 발언의 의미 이해를 위해 우선 북한 수산업의 현황 및 정책변화를 간단히 살펴보려 한다.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수산업 생산량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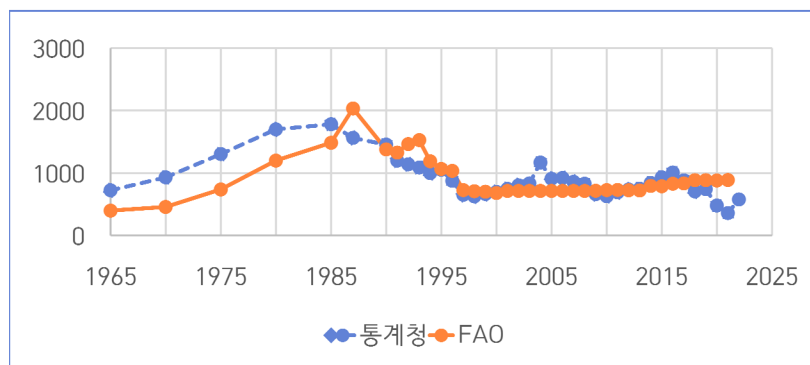
북한 수산업 생산량에 관한 공식적 통계는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동향 분석

통계청과 세계식량기구(FAO)에서 매년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다, 두 기관의 추정치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 구체적 수치를 100%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 추이는 실제 북한 수산업 생산량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 수치보다는 전체 추세를 중심으로 접근했으면 한다.

아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북한 수산업 생산량은 1980년대 초중반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 수산업 생산량이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주요인은 어선어업 생산량 감소로 꼽을 수 있다.

<그림 2> 통계청과 세계식량기구(FAO)의 북한 수산업 생산량 추정치 그래프



<표 1> 북한의 수산업 생산량 추정치

(단위: 천 톤)

년도	통계청	FAO	년도	통계청	FAO	년도	통계청	FAO	년도	통계청	FAO
1965	723	399	1991	1,200	1,327	2001	746	715	2011	691	729
1970	931	457	1992	1,141	1,463	2002	805	713	2012	737	724
1975	1,304	738	1993	1,089	1,527	2003	835	713	2013	749	721
1980	1,700	1,200	1994	998	1,189	2004	1,169	713	2014	842	794
1985	1,781	1,485	1995	1,052	1,065	2005	909	713	2015	931	788
1990	1,455	1,378	1996	876	1,036	2006	923	713	2016	1,009	829
			1997	651	726	2007	861	713	2017	884	834
			1998	627	710	2008	830	714	2018	705	887
			1999	664	702	2009	663	716	2019	743	885
			2000	698	681	2010	630	727	2020	479	882
									2021	360	889
									2022	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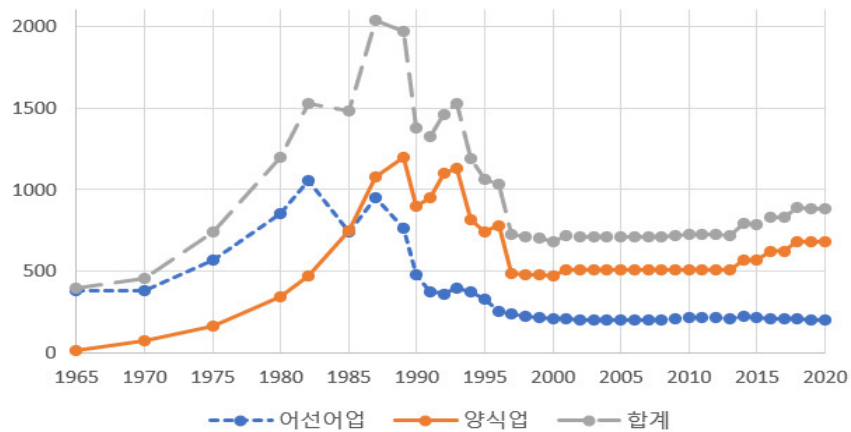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 포털(<https://kosis.kr/bukhan>), FAO(<https://www.fao.org>).

아래 <그림 3>은 북한 수산업 전체 생산량과 어선어업, 양식업 생산량 변화 그래프이다. 북한 수산업 생산량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어선어업 생산량은 급격하게 하락한 반면, 1980년대 초반부터 양식업 생산량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

동향 분석

후 북한 양식업 생산량도 하락했으나 어선어업 생산량 하락이 더 커, 전체 수산업 생산량에서 양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그림 3> 북한 수산업 생산량과 어선어업, 양식업 생산량



<표 2> 북한의 잡는 어선어업과 기르는 양식업 생산량 추정치

(단위: 천 톤)

년도	어선 어업	양식업	년도	어선 어업	양식업	년도	어선 어업	양식업	년도	어선 어업	양식업
1965	385	14	1991	377	950	2001	207	508	2011	219	510
1970	385	72	1992	363	1,100	2002	205	508	2012	214	510
1975	572	166	1993	397	1,130	2003	205	508	2013	209	512
1980	853	347	1994	372	817	2004	205	508	2014	226	568
1982	1,057	471	1995	327	738	2005	205	508	2015	220	568
1985	740	745	1996	253	782	2006	205	508	2016	209	620
1987	954	1,080	1997	237	489	2007	205	508	2017	209	625
1989	767	1,200	1998	228	482	2008	205	509	2018	208	679
1990	478	900	1999	220	482	2009	207	509	2019	205	680
			2000	213	468	2010	218	509	2020	202	680
									2021	208	681

자료: 통계청 북한통계 포털(<https://kosis.kr/bukhan>), FAO(<https://www.fao.org>).

위와 같은 북한 어선어업 생산량 하락한 주요인은 명태·정어리와 같은 동해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 하락으로 지목할 수 있다. 북한의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초반 북한의 명태 어획량은 100만 톤을 웃돌며 전체 어획량의 90% 이상을 기록하기도 하였다.⁹⁾ 1980년대 초반부터 명태, 이후에는 명태 어획량을 대체했던 정어리 어획량이 감소하며 북한 어선어업 생산량은 급감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비교적 노동력의 투입만으로 생산이 용이한 바다 양식, 특히 해조류(다시마)양식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오늘날 북한의 바다 양식 생산량은 전체 수산업 생산량에서

동향 분석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어선어업 재건에 집중투자, 하지만 결과는 미미

앞서 밝혔듯, 북한 수산업 생산량 하락의 주요인은 어선어업 생산량, 특히 동해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 하락이다. 북한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수산업 생산 구조의 다변화를 꾀하였다. 1980년대에는 바다 양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나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¹⁰⁾이라 일컬어지는 경제위기를 겪으며, 수산업 전체의 생산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1990년대에는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열대메기, 가죽잉어 등 내수면 양식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였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선 2010년대 중반에는 어선어업 재건과 내수면 가두리 양식 확대에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¹¹⁾ 해당 시기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각별한 관심 속에 조선인민군 내에 수산사업소를 조직하고, ‘단풍호’, ‘황금해호’ 등 표준어선을 보급하는 등 어선·어구 현대화 등 어선어업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또한, 전국각지의 농장, 기업소까지 내수면 가두리 양식장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해당 정책의 구체적 결과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북한 수산업 생산량 추정치의 변화, 북한 언론의 보도 양상 등을 분석해보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 수산업 생산량 하락의 주요인이라 할 수 있는 어선어업 생산량 감소, 특히 동해 한류성 어종의 생산량 감소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의 영향일 가능성이 커 단기간 북한만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위와 같이 북한도 수산업 생산량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나름의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생산수단 다변화라는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선어업, 바다양식 외 원양어업, 바다양어 등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평가할 수 있다.

‘바다가 양식법’ 제정하며, 다시 바다양식에 투자 확대하는 북한

2024년 12월 28일, ‘신포시 바다가 양식사업소’ 준공 기념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바다가 양식’을 중심으로 한 수산업 구조의 쇄신 및 재건과

동향 분석

발전을 언급한 바 있다. 뒤를 이어 2025년 1월에는 최고인민회의(1.22~23)에서 ‘바다가 양식법’을 제정했고, 2월에는 함경남도에 ‘락원군 바다가 양식사업소’를 착공했다. 지난 5월에는 내각에서 ‘바다가양식법 시행규정’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조선로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락원군 바다가 양식사업소’의 목표가 바다가 양식을 중심으로 나라의 수산업을 재건하고 인민생활보장의 물질적 기초를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북한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다가 양식법 시행규정’은 5개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바다가 양식장’의 조성하고 보호, 생산과 가공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하게 세우기 위한 원칙적 요구를 반영했다고 한다. 시행규정은 바다가 양식을 대대적으로 벌여 수산물생산에서 양식 생산물 비중을 점차 높여 나가기 위한 문제, 바다를 끼고 있는 지방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바다가 양식장’을 조성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문제 등을 법제화했으며, 바다 양식 부문 사업에 대한 국가적, 통일적 지도체계를 세우는 문제도 규정했다고 한다.¹²⁾

맺음말

최근 북한은 지방공업 발전을 위한 지방발전 20×10정책의 일환으로 함경남도 신포시와 낙원군에 ‘바다가 양식장’을 준공·착공했으며 이를 북한 전역의 연안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위원장은 ‘바다가 양식장’ 건설의 의미에 바다 양식을 중심으로 수산업을 쇄신·재건·발전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추어 ‘바다가 양식법’과 ‘시행규정’을 채택해 법·제도적 틀도 정비하였다.

북한 언론 보도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유추해 보면 북한의 ‘바다가 양식장’은 연안 시·군 전체로 확대될 것이며, 수산업 정책도 바다양식을 중심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 수산업 생산량에서 바다 양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북한 수산업은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 수산업의 구조적 한계로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어자원 감소와 어선어업·바다 양식 중심의 단조로운 수산업 생산 구조 등을 지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경제력과 기술력의 한계와 이로 인한 물적

동향 분석

지원의 미비, 사회주의적 생산 구조의 모순 등도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두고 보았을 때 바다 양식 중심의 수산업 정책전환이 획기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바다 양식 면적 확대와 생산량 증대를 대대적으로 강조했던 북한의 1980년대가 떠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지방공업 발전 정책이 주민 생활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산업은 주민들의 식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구체적 성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주민들의 식생활 향상 및 연안 지역 시·군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겠지만 북한 수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최근 북한의 바다 양식 강조 정책의 현황과 배경 등을 분석했다. 향후 성과 등에 대해 회의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으나 이제 첫발을 뗀 만큼 향후 진행 상황 등을 지속해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주민들의 식생활과 경제적 여건 향상을 위해 국가적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지점이며, 실질적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해당 연설의 구체적 내용은 노동신문, 2024년 12월 30일,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준공식 성대히 진행”을 참조
- 2) 최지영,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배경과 시사점”, Online Series, CO 24-10(2024.02.202), p. 1.
- 3) 노동신문, 2024년 2월 3일, “<지방발전 20×10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 각 도들에서 힘있게 전개”에 따르면 2024년 첫해에는 함경북도 경성군과 어랑군, 함경남도 금야군과 함주군, 자강도 우시군과 동신군, 양강도 김형직군, 평안북도 구성시와 운산군, 구장군, 평안남도 숙천군과 성천군, 황해북도 연탄군과 은파군, 황해남도 재령군과 은천군, 강원도 이천군과 고산군, 남포특별시 온천군, 개성특별시 장풍군이 선정되었다.
- 4) 한기범, “북한의 ‘지방발전 20×10 정책’ 평가: 지난 1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그 시사점”,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 2025-11(2025.04.10.), p. 4.
- 5) 노동신문, 2024년 7월 16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신포시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준비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 6) 앞의 기사.
- 7) 노동신문, 2025년 2월 15일,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착공식 성대히 진행”
- 8) 북한 수산업 생산량 관련 내용은 진희권, “북한 수산업의 변화와 특징: 생산량 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수산경영론집」, vol.55, no.2, 통권 133호, (2024), pp. 39~54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 9) 앞의 논문, pp. 94~95.
- 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에서는 북한, 고난의 행군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경제적, 대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북한의 대응 태세를 의미한다. 북한은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인한 내부 충격과 연이어 닥친 대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 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외환난, 에너지난 등 총체적 경제위기에 직면하였다. 특히 심각한 식량난에 처하게 되자 북한은 국제기구를 비롯해 우리나라, 중국, 미국 등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항일투쟁 시기의 혁명정신으로 위기를 타개하고자 하였다. 즉 1996년을 ‘고난의 행군’의 해로 정하고 난관을 스스로 이겨내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 11) 관련 내용은 진희권, “북한 어업활동의 회복과 변화”, 「KMI북한해양수산리뷰」, 2024년 12월호, pp. 6~16의 내용을 참조.
- 12) 민주조선, 2025년 5월 9일, “내각에서 바다가양식법시행규정을 채택”.

기획 칼럼

최근 북한 해군력 강화 움직임과 함의¹⁾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북한이 좌초한 구축함을 끌어 올려 진수식을 다시 열었다. 사고 함정을 인양한 뒤 복구하는 데 장기간 소요하거나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는 외부 전망과 달리 불과 20여 일 만에 함정을 바로 세워 바다에 띄웠다. 핵무기를 증강하는 북한이 구축함 건조에 매진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북한 관영매체는 6월 12일 나진조선소에서 두 번째 최현급 구축함인 강건함(함번호 52)의 진수식을 진행했고 밝혔다.²⁾ 앞서 북한은 5월 21일 청진조선소에서 진행한 진수식 중에 함정이 좌초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6월 말 개최를 앞둔 당 전원회의 이전까지 함정 복구를 완료하라는 지침을 내렸다.³⁾ 이후 조선소에서는 함정을 부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민간 위성을 통해 관측되기도 했다. 북한 매체는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⁴⁾ 북한은 이처럼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함정 복원을 추진했다.

북한은 진수식 사고 발생을 한 달여 앞선 4월 25일에는 남포조선소에서 최현급 구축함의 초도함인 최현함(함번호 51) 진수식을 열었다. 북한은 ‘400여 일’ 만에 ‘5,000톤급’ 구축함을 건조했다고 밝혔다.⁵⁾ 북한이 그간 보유한 최대 규모 함정은 나진급 호위함이며, 1,500톤 수준이다.⁶⁾ 따라서 신형 구축함은 3배 이상 커졌다. 또한, 신형 함정은 낙후한 기존 함정과 달리 현대화된 능력도 보유했을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진수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구축함에 대해 ‘대공, 대함, 대잠, 대탄도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초음속 전략 순항 미사일, 전술 탄도 미사일, 지상 타격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무장을 탑재해 다목적 수상 작전’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북한이 이번 신형 구축함 보유에 거는 기대는 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양작전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 해군의 능력과 임무는 이에 못 미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획 칼럼

북한 해군력 평가와 변화 추세

북한 해군은 전·평시 연안 방어 및 다목적 임무를 수행한다고 전망할 수 있다. 평시에는 침투 및 정찰 임무를 갖고, 전시에는 공격·방어·수중·상륙 등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 북한은 동해와 서해 각 해역에 별도 함대를 두고 예하에 13개 전대와 2개의 해상저격여단을 편성하고 있다. 북한은 대남 기습공격에 투입할 목적에 따라 전체 병력의 약 6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하고 있다. 북한 해군은 수상전력 470여 척과 수중 전력 70여 척 및 상륙 전력 250여 척을 보유한다. 반면 한국 해군 수상전력은 북한 대비 26% 수준인 120척, 수중전력은 11% 수준인 10척, 상륙 전력은 4%에 불과한 10척을 보유하고 있다.⁷⁾ 이처럼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에서 한국보다 양적 우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보유한 무기체계는 북한보다 수량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첨단 전략으로 평가된다. 남북한 해군 능력을 비교하면 ‘세대’ 차이가 크다. 한국 해군은 북한 미사일 공격을 탐지하고 방어하는 이지스 구축함을 도입해 운용하고, 수량은 적지만 북한 잠수함보다 능력과 규모가 앞선 3,000톤급 잠수함도 배치했다. 공군에서도 비슷한 여건이다. 한국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작전 배치했지만, 북한은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2세대급 미그-15를 운용한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종합적인 군사 능력 평가에서 세계 145개 국가 중 5위 수준으로 34위로 평가된 북한을 앞선다고 평가된다.⁸⁾

북한 해군이 보유한 함정은 대부분 1960년~1970년대 건조한 뒤 30년을 초과한다. 이에 함정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선령 노후뿐 아니라 함정 크기도 작아 작전반경은 북한 인근 해역으로 제한된다. 또한, 내파성 및 호위 전력 부족 등으로 원해 작전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배경에서 북한은 ‘기술 약세’를 ‘수적 우세’로 극복하는 방안을 추구한다. 북한 함정의 질적 수준은 낮지만, 소형 함정이 갖는 ‘기동성’에 기반한 ‘침투’ 및 ‘차단 작전’ 능력이다.

또한, 북한 해군은 잠수함을 활용한 비대칭 전력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잠수함을 은밀하게 한국 항만과 군항으로 침투한 뒤 기뢰를 부설하거나 어뢰 공격으로 위협하는 전술이다. 전시에 증원 전력의 원활한 작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한반도 근해로 전개하는 항모전단과 북한으로 접근하는 상륙세력에도 위협이 된다. 평시에도 한국 해군에게 상당한 위협과

기획 칼럼

피로도를 전가할 수 있다. 북한은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에서 치명적인 기습공격을 시도하기도 했다.

북한 해군은 질적으로 열세한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적 및 대형 함정의 도입이 필요했지만, 그간 전력 증강은 더딘 편이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신형 함정 건조가 점차 이뤄지기 시작했다. 북한이 경호위함 및 소형 경비함을 신규 건조해 배치하는 동향이 드러났다. 북한은 향후 다양한 함정을 건조할 계획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9월 6일에 열린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 연설에서 ‘연안 방어와 해상경계근무, 해상 공격작전 수행에 필요한 현대적 함정의 연이은 취역’을 강조했다. 게다가 대형 함정 보유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강건함 진수식에서 같은 대형 구축함을 매년 두 척씩 건조하겠다고 공언했다.⁹⁾

북한이 남북한 두 국가 선언 이후 남북한 분리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재래식 전력을 강화에 매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진수식 연설에서 ‘연안방어수역과 중간계선 해역에서 평시작전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중간계선해역’은 북방한계선(NLL)을 의미할 수 있다. 북한은 그간 NLL 무력화를 다양하게 시도했다. 다만, 대남 열세 전력으로 인해 무력시위에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북한이 현대화된 함정을 갖추고 해양 분쟁을 유도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북한 해군, ‘핵무기 공격’ 역할 증대 전망

최근 해군력 강화 추세를 재래식 증강 요인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해군력 강화는 핵 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연설에서 해군력 강화를 두고선 ‘특히 핵전쟁 억제력의 한 구성 부분’이라며 해군력을 핵전쟁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언급했다. 최근 새로 건조하는 함정을 활용해 해상에서도 핵무기를 쏠겠다는 의미다. 겉으로 드러난 무장 능력만 본다면 가능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같은 달 28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전투 적응성 시험’을 참관한 뒤에는 ‘강력한 공격능력을 전제로 하는 주동적이며 공세적인 방어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해군의 핵무장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책임적인 선택을 할 때가 되었다’고 언급했다.¹⁰⁾

기획 칼럼

북한은 이미 2023년에 핵무기 탑재도 가능한 순항미사일(SLCM)을 갖춘 함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상경계근무에 진입한 경비함 661호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소개했다.¹¹⁾ 북한이 개발한 SLCM은 함대함 또는 함대지 공격이 가능하다. 특히 ‘전략순항미사일’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할 수 있다. 해당 함정은 레이더 저피탐 형체로 건조했고, 1,000여 톤 규모로 추정된다.¹²⁾ 북한은 앞서 2015년 6월 15일 미사일 발사 훈련을 보도할 때도 신형 함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스텔스 형상으로 고속 기동이 가능한 미사일정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은 최근 핵무장이 가능한 신규 함정 전력화를 통해 핵 능력을 높이며, 관련 동향을 외부에 현시하면서 핵 억제력 강화를 추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은 향후 해상전략 기반 ‘핵 투발’ 수단 고도화 및 다양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핵 SLCM 탑재 신형 경비함과 유도탄정 건조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전망된다.

게다가 북한은 대형 구축함 배치를 통해 수중 핵공격 능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신형 구축함은 함대지 공격뿐 아니라 대공 방어를 비롯한 해상 무기체계 능력을 보유한다고 관측된다. 특히 수중 및 수상 탐색과 타격 능력을 보유할 경우 북한 영해 및 연안 해역에 은거하며 기습공격을 준비하는 북한 잠수함의 생존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제2격 능력’을 보유하는 수중 핵전력은 북한의 핵 억제력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비록 사거리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그치더라도 주요 대도시를 타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한 전략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북한 핵무장 잠수함은 과거 소련과 중국의 사례와 같이 북한 인근 해역에서 은밀하게 작전할 가능성이 크다. 공중 우세와 제해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무장 잠수함을 원해로 보내기에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호위할 수 있는 영해와 인근 해역에 안전하게 숨겨두는 전략이다. 신형 구축함을 이러한 해역 방어에 투입할 경우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는 임무를 갖는 한국 해군에게 위협이 된다.

북한은 이러한 핵 ‘고도화’ 전략에 따라 수중 핵 공격 능력을 키워가고 있다. 우선 로미오급 잠수함을 핵 공격용으로 개조하기도 했다. 2023년 9월 6일 ‘841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을 열고, ‘전술 핵공격잠수함’이라고 소개했다. 수직 발사대를 갖췄고, 총 10기 수준의 SLBM 및 SLCM 탑재도 가능

기획 칼럼

하다고 보여진다. 소형 SLBM(KN-11) 최대 사거리는 600km 수준으로 추정되며, 어뢰관(533mm)에서 SLCM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잠수함을 운용하는 비대칭 전략의 중점도 ‘침투’에서 ‘핵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은 핵 공격(SLBM, SLCM 등 탑재) 잠수함 및 핵 어뢰정 건조(개조)를 우선 추진한다고 전망할 수 있다.¹³⁾

북한은 장거리 및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도 추구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진수식 연설에서 ‘신형 구축함 진수식은 북한 해군 강화의 신호탄’이라며 ‘두 번째 신호탄은 바로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2021년 1월에 개최한 제8차 당 대회에서 ‘전략무기 5대 과업’을 제시하며 원자력추진잠수함 개발에 의지를 강조했다.

전략적 함의와 우리의 대응 방향

북한이 신형 구축함을 공개했지만 다양한 요인에서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기대와 달리 기술 부족에 따른 요구 능력 구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과도한 건조 기간 단축에 따른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진수식 도중 좌초하며 그러한 우려는 어느 정도 현실도 드러났다. 바다에서 빠진 뒤 꺼낸 강건함을 띄웠지만,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특히 최현급 구축함은 유사 함정의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다종의 능력을 과밀하게 통합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무기 체계를 새로 도입하면서 진수식 행사 개최를 비롯해 나름의 전력화 절차를 진행하는 동향을 드러낸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엄격한 검수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만들어 놓고 채워가는 기존 경험을 답습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진수식 이후 완전한 전력화에 도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북한은 대량 생산을 공언했지만 현대적인 함정의 단기간 내 양적 증가는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완전한 신규 건조보다는 기존 함정을 개조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소형 함정을 활용한 연안 방어 및 중심 침투 전략을 구사한다고 전망된다. 또한, 미사일 개발 사례와 같이 유사한 다종의 함정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표준화 추진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핵 공격 능력이다. 핵 공격을 목적으로 한 수상 및

기획 칼럼

수중 능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게다가 신형 구축함은 핵 공격 능력 뿐 아니라 수중 전력을 호위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수상전력의 보완적인 역할이 수중 핵전력의 생존성 강화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북한 핵 위협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와 연대를 강화하면서 원자력 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부품을 확보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북핵 위협 고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북핵 대응 3축 체계 실패를 검토해야 한다. 기습적인 북핵 공격에 대비한 지상 및 해상의 복합적 및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 능력 보강이 요구된다. 또한, 북핵 피격 시 한국의 공중 우세가 제한될 수도 있다. 우발 상황에 대비한 지상 기반 전략적 항공 작전기지 분산 및 해상기반 항공력 창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핵무장 수중 전력을 적기에 제압하기 위해서는 한국 해군이 현재 보유하는 잠수함의 작전 지속시간 및 기동 속도를 초월하는 능력을 갖춘 새로운 수단을 보유해야 필요성도 시급하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1) 본고는 “북한 해군력 강화 추세에 따른 북핵 위협 고도화 평가와 효과적 대응방향 모색,” 한국국방연구원, 『KIDA 안보전략 FOCUS』 (근간 예정)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 2) 북한 매체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함의 명칭을 ‘강건호’로 정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통상 만재 배수량 기준 500톤 이상 함정을 ‘함’으로 표기하는 한국 해군 전투함정 분류기준을 준용해 5,000톤 규모인 북한 신형 구축함은 ‘함’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관련 분류기준은 다음을 참조. 『간단하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해군(개정판)』 (계룡: 해군본부 정훈공보실, 2018), p. 70.
- 3)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구축함 원상복원을 6월 전원회의 전에 무조건 완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청진조선소와 나진조선소 노동자의 역할을 언급했다. “새로 건조한 구축함 진수식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5년 5월 22일.
- 4)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에서 사망한 청진조선소 작업반장의 가족을 만나 위로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배경에 대해 건조 과정인지, 사고가 난 진수식 진행 중인지, 좌초한 이후 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새시대 함선공업혁명과 해군무력 현대화의 과감한 전진발전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진수기념식 성대히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5년 6월 13일.;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진수식 연설에서 진수식을 불과 며칠을 앞두고 사망했다고 언급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진수기념식에서 하신 연설,” 『조선중앙통신』, 2025년 6월 13일.
- 5) “새시대 해군현대화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진수기념식 성대히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5년 4월 26일.
- 6) 북한 나진급 함정의 특성은 다음을 참조, Janes, *Janes Fighting Ships 2022-2023*, Surrey: Janes(2022), p. 456.
- 7) 북한군 전략 및 능력 평가, 남북한 군사력 비교는 다음을 참조. 국방부, 『국방백서 2022』 (서울: 국방부, 2021)
- 8) ‘2025 Global Firepower’ 군사력 평가는 무기 수량뿐 아니라 국방비와 전략물자 보유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평가한 결과를 냈다. 해당 조사는 145개국 대상으로 60여 개 항목을 평가했다. <http://www.globalfirepower.com>
- 9)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매해 두 척을 취역’한다는 계획과 ‘당 중앙군사위에서 내년도 2척 건조 계획을 승인했다’는 최근 동향을 언급했다. 앞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설문 참조, 『조선중앙통신』, 2025년 6월 13일.
- 10) “다목적구축함 《최현》 호의 함무장체계들에 대한 전투적용성시험에 착수,” 『노동신문』, 2025년 4월 30일.
- 11)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해함대 예하 ‘근위 제2수상함전대’ 시찰과 관련한 보도는 다음을 참조. 『노동신문』, 2023년 8월 21일.
- 12) Janes 앞의 글, p. 445.
- 13) 북한은 2023년 3월 핵 어뢰 개발 동향도 공개하면서 방사능 해일로 함대와 군항을 파괴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연구 동향

북한 수산업 정책·법·제도와 지속 가능한 협력 방향

조정연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연구위원

I. 들어가며

한반도의 수산업은 어족자원 감소,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의 환경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11년~2024년까지 조사된 자연재해 종류는 고수온, 저수온, 적조, 이상조류, 빈산소 수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가운데 고수온으로 인한 재해는 같은 기간 총 피해액 4,763억 원 가운데 3,472억 원으로 73%를 차지하여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원인으로 작용하였다.¹⁾ 한반도의 바다는 남과 북이 잇닿아 있어 남북한 모두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남한은 과학적 어업관리와 양식업 발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수산자원 보호에 힘쓰고 있다. 북한은 수산업을 식량안보 및 경제발전의 핵심 산업으로 지정하고, 주체적 어업 경영을 구심점으로 수산업의 현대화·과학화, 어족자원 보호, 법·제도적 개혁을 통해 국가 주도의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²⁾ 당국은 2023년과 2024년의 수산물 생산 실적이 각각 계획분의 105%,³⁾ 101% 달성되었다는⁴⁾ 양적 성과를 발표하였으나 북한의 수산업 발전은 경제난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남북한 협력은 공동어로구역 설정, 어족자원 공동관리, 불법어업 방지, 수산업 기술 협력, 수산물 위생·품질관리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남북한 해역에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어족자원이 분포하고 있어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남북한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 비록 북한이 2023년 말 “반통일 선언”을 통해 남한을 적대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긴장 국면일수록 남북 수산업 협력과 장기적인 통합을 더욱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남북 대치가 갑작스럽게 해소된 이후에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다면 수산 협력의 현실성과 시의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 동향

II. 북한의 수산업 정책 변화

김일성 집권기(1948~1994년) 북한의 수산업 정책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국가 주도의 자원 통제 및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경제부흥발전3개년계획과 연속된 7개년계획들을 통해 어업의 국유화, 어선·조선소·양식장 신설, 천해양식어업 개발, 원양어업 육성 등 산업적 기반이 확충되었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수산업의 현대화 및 과학화를 지향하면서 어로작업의 기계화 및 대형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북한 수산업의 산업적 확장과 미래 발전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김정일 집권기(1994~2011년)에는 제3차7개년계획 실패와 식량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북한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수산업은 주요 식량 공급원 및 외화 획득 수단으로 부상하였다. 1995년 제정된 《수산법》은 연근해 및 원양어업 발전을 위한 국가 주도 관리체계를 제도화하였으며, 이는 수산업의 현대화 기반 마련과 식량안보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⁵⁾

김정은 집권기(2011년~현재) 북한의 수산업은 최고지도자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 산업으로 재정비되었다.⁶⁾ 어업 통제 및 허가제가 강화되었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을 꾀하고 있다.⁷⁾ 기존 연근해 어업 중심에서 벗어나 바닷가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 환경 보호, 품질관리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정책의 다변화가 이루어졌다.⁸⁾ 이러한 변화 가운데 “바다로부터 인민의 식량을 공급받고, 동시에 외화 획득을 위한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장의 확장, 수산업의 과학화, 생산성 극대화를 추진한다”는 북한의 수산정책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⁹⁾

III. 북한의 수산업 법·제도 및 협력 필요성

1. 북한의 수산업 법·제도

1) 《수산법》의 체계와 내용

북한의 《수산법》은 1995년 1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49호로 채택되어 제정되었으며 김정일 집권기 두 차례, 김정은 집권기에는

연구 동향

일곱 차례 개정되었다. 최신 개정은 2022년 3월 15일 정령 제911호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현행법은 총 5장 54조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제1장 수산법의 기본, 제2장 수산자원 조성, 제3장 수산물 생산과 가공, 제4장 수산자원 보호, 제5장 수산 부문 지도 통제를 규정한다.

(1) 《수산법》의 기본

《수산법》은 수산자원 조성·보호 및 수산물 생산·가공에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수산업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은 수산자원 조성을 핵심 요소로 보고, 바다·하천·저수지·호소에서의 양어 및 양식사업 발전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하였다(제2조). 출어일수 확대 및 어로방법 개선을 통한 생산 증대, 가공 부문 혁신 역시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제3조). 또한, 수산업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촉진하고, 과학지식 보급과 사회주의·애국주의 교양 강화를 통해 자원보호사업 참여를 장려하도록 하고 있다(제4조, 제5조).

(2) 수산자원 조성

《수산법》 제2장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국가 주도의 계획 수립과 실행 절차를 규정한다. 중앙수산지도기관은 자원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조성 지표 및 방안을 수립해 국가계획기관 등에 전달하며(제8조), 수산과학연구기관은 양어·양식 적지를 조사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제9조). 수산지도기관과 연구기관은 경제성이 높은 품종 중심의 육종 체계를 확립해야 하며(제10조), 국가계획기관이 수립한 양어·양식시설 설치 계획과 인공 서식지 조성 등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 하에 이행되어야 한다(제14조).

(3) 수산물 생산 및 가공

《수산법》 제3장은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생산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어업 조직 및 과학적 계획 수립을 규정한다. 수산과학연구기관은 어종별 자원 분포 및 생산 가능량을 조사·산출하여 국가계획기관 등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제18조). 수산지도기관과 관련 단체는 어선·어구 현황과 자원량을 반영해 수산물 생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수산지도기관의 심의를 받아 국

연구 동향

가계획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생산 및 수출 계획을 수립하며 조성 계획 미이행 시 생산·수출이 금지된다(제19조). 어장 분할 및 어업 허가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관련 자료는 국토환경보호 기관에도 공유된다(제20조). 또한, 어선에는 수산물 선도를 유지할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선도가 확보되지 않은 수산물은 가공이 제한된다(제27조).

(4) 수산자원 보호

《수산법》 제4장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한다. 매년 4월과 7월을 ‘수산자원보호월간’으로 지정하여 보호활동을 집중하도록 하였다(제31조).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수산자원특별보호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분담하며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제33조). 수산과학연구기관은 수산자원 보호 관련 실태자료를 매년 국가계획기관,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제34조). 바다·하천·저수지·호수에 수산자원에 유해한 미광, 정화되지 않은 폐수, 방사성 물질, 독성 물질, 오물 및 폐기물의 배출을 금지하여 수질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제40조).

(5) 수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수산법》 제5장은 수산 부문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를 규정한다. 중앙수산지도기관은 수산물 생산 단위의 조직, 계획 수립, 생산 및 기술 지도를 정확히 장악·지도해야 한다(제42조). 수산지도기관 및 관련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업 부문 근로자의 작업·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선단 운영 질서 및 노동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제43조). 수산물 수출은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요하며(제44조), 북한의 경제수역 내 외국인의 수산활동은 금지되고 협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따른다(제46조). 수산물 생산에 나서는 기관·기업소·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으로부터 어구 및 생산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제48조).

2) 《수산법》 개정 과정과 법 정비의 의의

북한의 《수산법》은 국가 주도의 어업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 동향

수산자원 보호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정비되어왔다. 초기 개정은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자원 보호에 중점을 두었으나 1999년과 2007년 개정을 통해 남획 방지와 자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3년 이후에는 수산물 품질 및 위생 기준이 도입되어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7년 개정에서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어업 허가 제도를 중앙집권적으로 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2022년 개정은 어구 및 수산물 검사를 강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장비 이관·수리체계를 포함하여 관리시스템을 정교화하였다.

이러한 법 정비는 단순한 어업 규제 강화를 넘어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자원 보호와 합리적 이용, 품질 및 위생 기준을 확립하였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 및 유엔 식품농업기구(FAO)의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준과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향후 국제 기준을 반영한 추가적인 법·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더불어 남북 수산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개방적인 방향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수산자원의 공동 관리 및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북한 수산업 법·제도의 한계와 협력 필요성

1) 북한 수산업 법·제도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

북한의 수산업 법·제도는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 체제에 기반하여 중앙집권적이며 경직된 구조를 띤다. 어업권은 민간이 아닌 국가에 의해 배분되며 자율적 조업이 제한되어 전반적인 생산성과 시장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¹⁰⁾ 수산자원 보호 규정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감시와 단속 체계가 미비하여 남획 및 불법 어업 통제가 어렵다.¹¹⁾ 또한, 북한의 법제는 유엔해양법협약이나 FAO 기준 등 국제 규범에 부합하지 않아 수산물 품질·위생관리 측면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부족하다.¹²⁾ 어업 허가 및 자원 배분 체계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조업 기회가 불균등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남북한 간 수산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산업 법제의 유엔해양법협약 및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의 부합성 확보 △어업 허가제 및 자원 관리체계의 효율적 개편 △수산물 유

연구 동향

통 구조의 조정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 및 감시 강화가 절실하다.

2) 국제해양법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기준에 따른 남북한 협력 방향

남북한은 수산업 운영체계에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라는 구조적 차이를 보이지만, 동일 해역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공동 자원 관리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협력은 일방의 체제를 적용하기보다 유엔해양법협약과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보편적 국제 기준에 기반한 중립적 협력체계로 구축되어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SDG 14는 해양 생태계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강조하며 핵심 과제로 불법조업 어업 근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남한은 감시체계와 법적 규제가 일정 수준으로 정비된 반면, 북한은 제도적 대응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SDGs 14 이행에 부합하는 수산업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와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정책 협력이 필수적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남북의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 어종 분포 변화, 해양 산성화, 수온 상승 등의 영향은 남북한에 공히 영향을 미치므로 공동 환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친환경 어업 기술 교류가 필요하다.

남북한은 수산물 품질관리와 표준화 체계 구축에서도 협력해야 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 개발도상국위원회(DEVCO)가 운영하는 Twinning & Monitoring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남북이 공동으로 인증제도를 정비하고 수산물 품질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이 분야는 정치적 민감성이 낮고 실무 중심의 협력이 가능한 영역으로, 제도 개선, 기술적 역량 강화, 국제 파트너십을 중시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도 부합한다.¹³⁾

결국 남북한이 유엔해양법협약과 SDGs 14를 기준으로 △법·제도 정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공동 대응, △품질인증 및 국제표준 역량 강화,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한반도 해양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의 견고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연구 동향

IV. 나가며: 지속 가능한 남북한 수산 협력 방향과 함의

최근 북한 내각은 ‘바다가 양식법 시행규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결정하고, 이를 수산성을 비롯한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에 시달하였다. 5개 장, 50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 규정은 양식장의 조성보호, 양식물의 생산과 가공 분야에서의 제도 및 질서 수립에 따른 당국의 원칙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¹⁵⁾ 이 규정은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제도임과 동시에 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이라는 원칙을 함께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북한이 자원 보호와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남북한 간 수산업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남북한 수산업 협력은 공동 해역의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 식량안보 확보, 동북아 해양 질서의 안정적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다. 협력의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이 수산 관련 법·제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과 FAO의 지속 가능한 어업 원칙에 기반한 제도적 준비는 향후 협력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주요 어종 분포 변화, 해양 산성화, 수온 상승 등 해양환경 변화를 공동 모니터링하고, 친환경 어업기술과 양식업 정보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남북한이 국제 기준에 기반한 법·제도 정비와 공동 대응 체계를 실현할 수 있다면 한반도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자원관리 차원을 넘어, 해양환경 보전, 식량안보 강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측면에서도 전략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특히 수산물 품질인증, 기후변화 대응,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 등은 실천 가능한 중립적 분야로, 남북 간 신뢰 형성의 초석이 될 수 있는 협력 지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남북 수산업의 제도적 통합을 촉진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해양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한반도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될 것이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 동향

참고문헌

국내 문헌

-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25 수산경제전망』, 서울: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2025.
- 박성래·김종철, “한국 수산업의 선진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해양정책연구』, 제25권 제2호(2010).
- 박성래, “북한의 수산업 실태와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방향,” 『水産經營論集』, Vol 46 No 3(2015).
- 조정연, “한반도 경제통합의 시작, 남북한 표준통합,” 『통일미래학 개론』, 서울: 박영사, 2004.
- 진희관·윤인주, “김정은 시대 북한의 수산정책 연구-노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해양정책연구』, 제34권 제2호(2019).
- 차철표, “북한 수산제도의 비교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4권 제2호(2012).
- 국립수산물연구원, 「해양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 브리핑 북 2025」, 부산: 국립수산물연구원, 2025.
- 법제처, 「남북법제 정책연구 영역 제2권 경제·법제 분야」, 서울: 법제처, 2019.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북한 수산정책의 변천,” <https://nkinfo.unikorea.go.kr/>

북한 문헌

- 로동신문, 2019.12.14. “수산업발전을 추동하는 수백건의 새 기술성과들”.
_____, 2022.9.27. “수산자원보호증식에 수산업발전의 전도가 달려 있다”.
- 민주조선, 2025.5.9. “내각에서 바다가양식법시행규정을 채택”,
조선중앙통신. 2015.1.1. “김정은 제1비서의 신년사”.
_____, 2023.12.3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연구 동향

_____, 2024.12.2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어법》

외국 문헌

UNDP,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4.” New York: UNDP, 2024.

- 1)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양수산물분야 기후변화 영향 브리핑 북 2025」, (부산: 국립수산물과학원, 2025, pp. 3-13.
- 2) “수산업 발전을 추동하는 수백 건의 새 기술 성과들,” 『로동신문』, 2019.12.14.
- 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3.12.31.
- 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4.12.29.
- 5) 법제처, 「남북법제 정책연구 용역 제2권 경제·법제 분야」 (서울: 법제처, 2019), p. 62.
- 6) “김정은 제1비서의 신년사,” 『조선중앙통신』, 2015.1.1.
- 7) “수산자원 보호증식에 수산업 발전의 전도가 달려있다,” 『로동신문』, 2022.9.27.
- 8) 진화권·윤인주, “김정은 시대 북한의 수산정책 연구-노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해양정책연구』 제34권 제2호(2019), pp. 45-63.
- 9)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북한 수산정책의 변천,” <https://nkinfo.unikorea.go.kr/> (검색일: 2025.1.15).
- 10) 차철표, “북한 수산제도의 비교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4권 제2호(2012), p. 319.
- 11) 박성래, “북한의 수산업 실태와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방향,” 『水産經營論集』 Vol 46 No 3(2015), p. 91.
- 12) 법제처, 「남북법제 정책연구 용역 제2권 경제·법제 분야」 (서울: 법제처, 2019), p. 510.
- 13) 조정연, “한반도 경제통합의 시작, 남북한 표준통합,” 『통일미래학 개론』 (서울: 박영사, 2004), p. 549.
- 14) UNDP,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4,” (New York: UNDP, 2024), p. 78.
- 15) “내각에서 바다가 양식법 시행규정을 채택,” 『민주조선』, 2025.5.9.

북한 알기

북한에도 어촌이 있나요?

김 혁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

어촌의 개념과 형성

북한에서 농촌과 어촌은 서로 혼재되어 있어 읍·면 단위 행정 구분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해당 마을의 주요 경제활동이 농업인지, 어업인지에 따라 농촌과 어촌을 구분할 수도 있다.

남한에서 어촌에 대한 개념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 기본법) 3조 6항에 따라 하천, 호수 또는 바다와 인접하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으로 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읍·면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주요 경제활동이 어업인 읍·면 단위를 어촌으로 규정한 것이다.

남한과 달리 북한의 경우 어촌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북한에서 어촌은 사전적 정의로 바다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어업의 측면에서 보면 수산업으로 바다뿐만 아니라 하천, 저수지, 호수의 양어, 양식사업도 포함해 남한과 개념상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북한에서는 어촌이라는 법적·제도적 규정이 없을까. 그 이유는 북한의 행정단위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의 행정구역 구분은 기본적으로 특별시, 도, 시(구역), 군, 구(노동자구), 리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 사이 농촌을 협동조합으로 통합한 데 이어 리 단위를 협동농장으로 개편해 생산 단위로 전환시켰다.

따라서 북한의 농촌, 어촌이라는 마을은 행정구역상 협동농장에 포함된 생산 단위로 구성되며, 말단 행정단위는 군(읍)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협동농장에는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행정 기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군(읍)으로 나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다만, 북한의 농촌이나 어촌은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농장, 협동조합이라는 생산 단위 형태로 존재하며,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다.

북한 알기

북한 어촌의 구성과 특성

북한의 어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 단위로서 북한의 수산업 분야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수산업(생산)은 농업과 마찬가지로 국영단위와 협동단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영단위에는 시(구역), 군, 노동자구 규모의 수산사업소, 바다가 양식사업소, 세소어업¹⁾이 포함되고, 협동단위는 수산협동조합, 협동농장 농장 수산반, 기타 협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어촌에 해당되는 대상은 수산협동조합, 협동농장 수산반(소규모 마을)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어촌 구성에 대한 시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함경남도 북청군의 사례를 위성영상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함경남도 북청군은 남한에서 물장수로 유명했으나, 북한에서는 북청 사과로 유명한 고장이며, 어업에서는 수산사업소, 바다가 양식사업소, 여러 수산협동조합과 수산작업반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먼저 함경남도 북청군 신창노동자구는 기본적으로 노동자 비중이 높은 행정단위로 인구는 적지만 인구밀도가 높아 어항을 보유하고 있다. 신창구에는 신창수산사업소와 전용 어항, 신창수산협동조합과 조합용 부두가 있다. 신창수산협동조합은 다른 수산협동조합보다 큰 편에 속하며, 하나의 마을을 구성하는 특성이 있다. 위성사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어항 뒤편에 어촌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신창노동자구 수산협동조합 모습(Google Earth Pro, 2022.12.14.)

북한 알기

신창수산협동조합 마을의 특징을 보면 마을 규모는 동쪽으로 분리된 일부 마을까지 포함할 경우 약 250~300가구 수준으로 일반 리 단위 규모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신창수산협동조합은 북한의 중앙기관 지에 자주 소개되는 수산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사례로 잘 정비된 별도의 어항을 갖추고 있다. 특히 조합소유로 보이는 80~100마력 철선 5척, 50마력 목선 17척, 무동력 목선 15척 정도가 확인되어 어업 생산능력도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신창노동자구와 동쪽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만춘수산협동조합은 같은 조합임에도 신창수산협동조합과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어항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자연 상태의 백사장에 배를 정박시키고 있으며, 마을 가구 수도 약 150가구 정도로 작은 어촌이다. 여기에 방파제가 없어 해풍이나, 해일에 취약한 구조로 어선도 100마력 수준의 철선 1척, 50마력의 목선 7척, 무동력 목선 10여 척이 있으며, 만안을 중심으로 양식업(다시마, 가리비, 홍합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림 2] 만춘수산협동조합마을 모습(Google Earth Pro, 2022.12.14.)

만춘수산협동조합의 특성을 보면 지리적으로 주변에 평야가 적고 일부 소규모 산간지와 3ha 규모의 작은 논이 있어 농산반과 수산반이 하나의 어촌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시설에는 농장관리위원회, 김일성·김정일 연구실, 사적지, 만춘리 보안소, 문화회관 등 공공시설과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가 같은 공간에 건물로 구분되어 있다. 즉 수산협동조합을 제외하면 북한의 일반적인 리 단위 농장과 구성이 유사하다.

북한 알기

물론 어촌에는 주업이 농업인 농장마을이라고 하더라도 작업반 단위로 수산반이 존재한다. 북한의 대부분 리 단위는 생산 단위로서 한 개의 농장을 의미하는데, 농장에는 다수의 작업반이 배속된다. 농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장은 면적이 넓고 마을 가구 수와 작업반도 많다. 특히 농장 읍내와 떨어진 마을의 경우 하나의 작업반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해안과 접해있는 경우 수산반을 구성해 농업과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그림 3] 만춘협동조합 수산작업반마을 모습(Google Earth Pro, 2022.12.14.)

예컨대 만춘리 읍내에서 동쪽으로 약 1.5km 떨어져 있는 작업반 마을은 약 80가구 정도의 작은 어촌로 군인 가구, 어로공 가구, 농장 가구가 섞여 있는 마을이다. 수산작업반으로 구성된 어촌이지만 소규모 농장반과 수산반이 있고, 50마력 목선 1척, 무동력 목선 5척이 해안경비대 앞쪽에 정박해 있다. 작은 규모의 어촌임을 감안하면 대체로 양식업이 어업의 대부분을 차지함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북한의 어촌은 지리적 특성이나 지역적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도시와 근접한 어촌의 경우 다양한 문화생활 시설, 공공시설이 존재하는 반면, 작은 규모의 어촌은 사실상 생산과 주거만 마을을 구성한다. 특히 생산시설에서는 리 단위 규모의 경우 어항을 비롯해 가공시설도 존재하지만, 규모가 작은 수산협동조합 마을이나 수산반은 어촌을 대표하는 어업시

북한 알기

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북한의 어촌 개발 정책

북한은 2021년부터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농촌진흥정책을 추진해왔다. 2022년에는 ‘새 시대 농촌강령’을 제시하고, 농촌 단위들의 낙후성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환경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24년부터 ‘지방발전 20×10정책’을 제시하고 그 일환으로 바다가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시범 사업으로 신포 바다가 양식사업소를 건설해 도시 바다가 양식사업소 개건 현대화의 모범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5] 신포시 바다가 양식사업소 준공식 전경
(조선중앙통신, 2024.12.30.)



[그림 6] 낙원군 바다가 양식사업소 개발 전망도
(조선중앙통신, 2025.2.15.)

북한은 지난해 도시의 바다가 양식사업소 건설에 이어 올해는 군 단위의 바다가 양식사업소를 대표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단위의 바다가 양식사업소 시범 사업 건설은 개건 현대화의 일환으로 기존의 낙원군 세포리 50~60가구의 하촌마을²⁾을 대상으로 생산과 생활, 공공시설까지 시범 사업에 포함하고 있어 어촌 개발사업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공개한 함경남도 낙원군 세포리 하촌마을에 조성될 군 단위 규모의 바다가 양식사업소는 기존의 양식사업소를 철거하고 현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포리 약 50~60가구의 주택을 철거하고, 약 100여 가구의 농촌형 주택을 건설하게 되는데 여기는 농장원 주택지구, 양식사업소 종업원 주택지구, 탁아소, 유치원, 상업 및 편의봉사시설, 어업에 필요한 2개의 방파제, 2개의 잔교 부두 등을 비롯한 어항(생산기반) 시설도 포함하고 있다.

북한 알기

물론 이러한 북한의 시범 건설 사업이 전체 어촌마을로 확대되기에는 지방의 건설 역량(인력, 장비, 자재 등)이나 시공 능력(기술역량, 기능공, 기술자 등)에 따라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동서해안에 분포한 다수 어촌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면 군 단위 등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작은 어촌을 현대적으로 개발하고 표준화함으로써 북한당국의 정책 방향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치적 선전효과가 크다. 특히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의중이 반영된 당의 정책 방향이라는 점, 어업·양식업·양어업 증산을 위한 어촌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어촌 개발사업이 소규모 어촌(조합, 작업반)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현재까지 추진중인 어촌 개발사업은 대상건설로서 중앙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협동조합 수준의 작은 어촌은 지역 당국 차원의 건설 역량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여기에 북한의 대규모 건설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어촌 개발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KMI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과학백과사전출판사(2004), “조선말대사전”

과학백과사전출판사(1982), “조선전사”

교육도서출판사(1963), “농촌건설계획”

노동신문(2024.10.22.)

조선중앙통신(2024.12.30., 2025.2.15.)

KDB산업은행(2020), “2020 북한의 산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시행 2021. 3. 23.](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통일부(출처 :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

1) 세소어업이란 작은 어구, 어선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어업을 의미한다.

2) 하촌은 행정구역상 함경남도 낙원군 세포리에 속해 있는 마을 이름이다.

북한 소식
4월

북한 언론 해양·수산 기사

진희권

부산대학교 통일한국연구원 연수연구원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로동신문	4월 6일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제고에 힘을 집중	- 황해북도 서흥군 '서흥범안 양어사업소'에서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 제고 -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과 기술전습 등을 통해 선진적 양어기술 보급 - 종자문제 해결, 인공번식, 배합 먹이의 효과성 제고 등을 자체의 기술로 해결해 철갑상어, 가물치 양어의 과학적 토대 구축 - '뽕물등에' 서식장, 우렁이 양식장을 꾸리고 자연에너지를 적극 이용하여 동물성 단백질 먹이와 수온을 보장해 메기, 열대붕어, 룡정어 등의 사름룰과 증체율 제고. 칠색 송어도 계절에 상관없이 생산
로동신문	4월 8일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들에서 첫 분기계획을 완수하고 계속 힘차게 전진, 5개년계획 완수의 확고한 담보 마련	- 경제적 효과가 큰 바다가 양식을 대대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황해남도의 '부포 바다가 양식사업소', '웅진 바다가 양식사업소', '구미포 수산사업소'에서는 선진적, 과학적 양식기술을 도입 바다나물 생산 증대 - 강원도 원산시 '송도원 수산사업소'에서는 양식장 면적을 확장하고 기능공을 양성해 계획 수행의 담보 마련 - '원산 수산물생산 가공사업소'에서는 생산성이 높은 섭조개 양식을 실속있게 진행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생산량 제고
로동신문	4월 10일	암예방 치료에 좋은 다시마와 미역	- 다시마에는 암의 예방과 치료에 좋은 유기·무기 물질이 풍부 - 특히 다시마 우린 물은 암의 증식을 억제, 구운 다시마도 건강에 더 좋은 작용을 함 - 미역은 유선암을 예방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민주조선	4월 10일	동해의 어장으로 진출하는 고기배들 출항	- 함경북도의 ‘청진수산사업소’, ‘신함수산사업소’, ‘김책수산사업소’ 등에서는 출어준비를 마치고 4월 8일 어장으로 진출
로동신문	4월 11일	락원군 바다가 양식사업소건설 본격적으로 추진	- 군인 건설자들은 짧은 기간에 지대정리와 작업도로 확장, 기초 공사를 끝내고 골조 공사와 방파제·부두 공사를 입체적으로 진행
로동신문	4월 23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 해양수산 부문 수상 단위 - 2중 3대혁명붉은기: 동해수산연구소 청진분소
로동신문	4월 23일	집단적 혁신으로 1차물막이공사 성과적으로 결속, 해방간석지 건설장에서	- 황해남도 웅진군 해방간석지 건설장, 1차 물막이 공사 성과적으로 결속
로동신문	4월 25일	모범적인 단위들과 기대에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 해양수산 부문 수상 단위 - 2중 26호모범기대영예대상: ‘남포선박운영보장사업소’ - 26호모범기대영예상: 단천선박공장 가공직장, 단천선박공장 선체수리직장, 수산연구원 동해수산연구소 청진분소, 남포해운대학, 남포항무감독소, 국가종합훈련보장국 해양체육훈련소
로동신문	4월 26일	새시대 해군현대화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진수기념식 성대히 진행	-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하에 새로 건조한 구축함 진수기념식이 4월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성대히 진행 - 새로 건조한 5,000t급 신형 다목적 구축함은 ‘최현’급으로 등급 분류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강력한 무장을 갖춘 5,000t급 구축함을 순수 자체 기술로 불과 400여 일 만에 건조한 것은 해군전력 강화에 결정적 진보라고 치하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원양함대 보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언급하며, 세계적 해군 무력 발전 추세에 맞게 해군전력 강화를 위한 당의 구상과 방도 등을 제시
로동신문	4월 30일	다목적구축함 <최현>호의 함무장체계들에 대한	- ‘미싸일총국’과 국방과학원, ‘탐지전자전총국’은 4월 28일과 29일, <최현>호에 탑재된 무장체계들의 성능 및 전투적용성 시험 진행 - 4월 28일,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 반항공미사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전투적용성시험에 착수	일의 시험발사와 127mm 함상 자동포 시험사격 - 4월 29, 함대함 전술유도무기와 함상 자동기관포, 연막 및 전 자 장애포 시험사격

북한 소식
5월

북한 언론 해양·수산 기사

진희권

부산대학교 통일한국연구원 연수연구원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민주조선	5월 9일	내각에서 바다가양식법시행 규정을 채택	- 내각에서 ‘바다가 양식법 시행규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결정하고, 수산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에 시달 - 나라의 수산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채택된 ‘바다가 양식법 시행규정’은 5개 장 50개 조문으로 구성 - 시행규정은 ‘바다가 양식장’의 조성과 보호, 바다 양식물의 생산과 가공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기 위한 원칙적 요구를 반영 - 바다 양식을 대대적으로 벌여 수산물 생산에서 양식생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적으로 높이는 문제, 수역에 맞는 우량한 양식품종과 과학적 양식방법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바다 양식장을 건설해 지방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문제 등을 법제화 - 바다양식 부문 사업에 대한 국가적, 통일적 지도체계도 규정 - 수산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바다가 양식법 시행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로동신문	5월 11일	다시마가 심장발작과 뇌졸중의 발생위험성을 낮춘다	- 해외 연구자료에 의하면 다시마를 정상적으로 섭취하면 심장 발작과 뇌졸중의 발생 위험성을 37% 낮출 수 있다고 함 - 일주일에 다시마를 100g만 섭취하여도 심근기능이 훨씬개선되고, 혈압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함
로동신문	5월 18일	준공 후 첫 다시마수확-새시대 바다가 양식업의 표본으로 일떠선 신포시 바다가 양식사업소에서	- 함경남도 ‘신포시 바다가 양식사업소’가 준공 후 첫 다시마 수확 계절을 맞이, 첫 다시마 수확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로동신문	5월 20일	락원군 바다가 양식사업소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 착공 후 수십일만에 골조공사 결속, 연일 성과 확대	- 5월 15일 현재, '락원군 바다가 양식사업소'의 전반적인 건물들에 대한 골조공사 성과적으로 결속
로동신문	5월 22일	새로 건조한 구축함 진수식 진행	- 새로 건조한 5,000t급 구축함 진수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가 하에 5월 21일, 청진조선소에서 진행 - 구축함 진수식 과정에서 엄중한 사고 발생. 미숙한 지휘와 조작상 부주의로 대차이동의 평행성을 보장하지 못해 함미부분의 진수 썰매가 먼저 이탈하여 함의 균형이 파괴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를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중대 사고이며 범죄적 행위라고 질책
청년전위	5월 26일	함경북도의 수산단위들에서 물고기잡이 실적 1.3배, 양식물의 생산성 제고	- 함경북도 '신암수산사업소', '청진수산사업소', '김책수산사업소' 등에서 어획량 및 양식 생산량 제고 - '간해방류어업사업소', '석호 바다가 양식사업소'는 다시마 등 바다나물 생산에서 높은 실적 기록 - '고말산 대서양 연어 바다양어사업소'에서는 수십만 마리의 어린 고기와 새끼 물고기를 바다에 방류해 수산자원 증식에 이바지

북한 소식 6월

북한 언론 해양·수산 기사

진희권

부산대학교 통일한국연구원 연수연구원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로동신문	6월 12일	개건된 갈마역 준공식 진행	- 항구문화도시 원산시에 갈마역 준공, 6월 11일 준공식 진행
로동신문	6월 13일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진수기념식 성대히 진행	- 조선인민군 해군 구축함 진수기념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하에 6월 12일, 라진조선소에서 진행 - 당 중앙위원회 조춘룡 비서는 진수 기념사에서 “신형다목적구축함은 해상방위를 위한 주동적인 견제력량”으로 적대세력이 연해와 대양, 지상 어디에 있든 보복타격할 수 있으며, 당과 국가가 지향하는 해양강국의 시대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확언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해당 구축함을 ‘최현’급 ‘강건’호로 명명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기념 연설에서 ‘함선공업혁명’을 본격화할 수 있는 높은 기술력을 확보했다며, 내년부터 ‘최현’급 이상의 구축함을 매년 두 척씩 건조해 작전 수역에 배치하겠다고 언급
로동신문	6월 15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 해양수산 부문 수상 단위 - 남포항무감독소
로동신문	6월 16일	논판양어를 잘하는 단위들의 경험	- 황해남도 신천군 읍농장에서는 물을 제때에 대고 뺄 수 있는 포전을 선정해 메기양식에서 성과 - ‘평안남도농촌경리위원회’ ‘대릉농장’에서는 장마철 관리대책을 잘 세워 메기양식에서 성과 - 평양시 강남군 ‘당곡농장’에서는 자연먹이 외 소 배설물을 활용한 미생물 먹이를 보충해 메기양식에서 성과

보도 매체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청년전위	6월 18일	국가관광총국 부총국장 나라의 관광산업발전전망에 대해 언급	- ‘국가관광총국’ 부총국장 리정혁은 산악 관광업과 해안 관광업은 전망이 확고한 관광산업이라고 설명 - 동해안은 금강산과 칠보산, 마전, 금야, 리원, 염분진 등 아름다운 명승지가 많아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면 체육형 관광자원, 휴식 위주 관광자원, 해상경치 부감 관광자원으로 특색있게 개발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
로동신문	6월 26일	사회주의문명개화의 새 경관을 펼친 동해기슭의 관광명소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 성대히 진행	- 6월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하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 성대히 진행. 러시아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도 특별 손님으로 초대 - 내각 총리 박태성은 준공사에서 “생태환경에서 제일가는 해안 명소라고 할 수 있는 갈마반도가 우아하고 현대적인 새모습으로 개변”되었다며 “해안관광지구의 진정한 의미와 특유의 멋이 있고, 그 어느 관광명소도 올라설 수 없는 숭고한 경지”라고 평가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관광문화를 확립하는데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 또한, “관광산업은 문화분야의 개화발전을 촉진하는 것과 함께 해당 지역의 진흥을 추동하고,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동력”이라며 “우리식 관광업을 대대적으로 확대발전”시킬 것을 지시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갈마반도개발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여러 지역에 각이한 류형의 유망한 대규모관광문화 지구들을 최단기간 내에 건설하는 중대계획을 당 제9차대회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발언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7월 1일부터 국내 손님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
로동신문	6월 26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26호모범기대영예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 해양수산 분야 수상 단위 - 3중26호 모범기대영예상: 평양수산물백화점 - 26호모범기대영예상: 단천선박공장, 라선해양산업사업소
로동신문	6월 29일	태천군에서 1만여 마리의 새끼쏘가리 방류	- 평안북도 태천군에서 1만여 마리의 새끼 쏘가리와 10여만 마리의 먹이용 물고기를 태천호에 방류

북한 소식
4~6월

NK News 북한 해운·항만 기사

정 다 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원)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4월 30일	North Korea, Russia officially begin construction of new Tumen River car bridge	- 2025년 4월 30일, 북한과 러시아가 두만강을 잇는 새로운 도로 교량 건설에 공식 착수 - 교량은 총연장 4.7km, 총사업비는 약 1억 1,100만 달러 규모로, 2026년 말 완공 목표 -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가 화상으로 착공식에 참석했으며, 이 사업은 양국 간 물류 효율성 제고와 관광 및 경제교류 확대, 그리고 군사 협력 강화의 기반 마련 - 이 교량은 북러 간 최초의 차량 통행 국경 연결로서 전략적 의미를 가지며, 최근 군수물자 운송 수요 증가와 연계된 것으로 해석 - 반면, 중국의 동해 진출 전략과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며 지정학적 파장이 주목
5월 22일	‘Serious accident’ derails launch of new North Korean warship	- 북한이 2025년 4월 청진조선소에서 진수하려던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이 진수 과정 중 좌초되며 심각한 손상 - 측면(side) 진수 방식의 기술 미숙과 구조적 설계 결함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하고, 이를 “중대한 범죄적 행위”로 규정, 관련 기관과 인사에 대한 문책을 지시 - 이 구축함은 북한 해군의 대공·대잠 능력 강화 및 원해작전 확대를 목표로 한 해군 현대화 프로젝트의 핵심 전력으로, 이번 사고는 진수 일정 지연은 물론 군사력 과시 구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 - 북한이 해당 사고를 노동신문 1면에 공개 보도한 것으로, 이는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실패를 내부 결속 및 지도자 위상 제고 수단으로 전환하려는 정치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 - 비록 단기적 지연은 불가피하나, 북한 해군 현대화 기조 자체는 지속될 것으로 관측
5월 22일	Ferry could link Russian Far East to North Korea's Wonsan Kalma resort: Envoy	-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와 북한이 블라디보스토크~원산갈마관광지구 간 페리 노선 개설을 협의 중이라고 언급 - 해당 노선은 약 10~15시간 소요되는 '편안한 해상 여객 노선'으로, 2025년 6월 예정된 원산갈마관광지구 개장을 계기로 러시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신규 교통수단으로 추진 - 현재 러시아 여행사 보스톡 인투루(Vostok Intur)는 7~8월 단체 관광상품을 판매 중이며, 북측은 러시아인 맞춤형 관광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 원산갈마관광지구는 4km 해안, 1만7천 객실, 수용 인원 최대 10만 명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2018년 착공 이후 7년 만에 개장 예정 - 한편, 남포·청진 외에도 나선~원산 구간 페리 복원 가능성과 만경봉호 운항 재개 여부, 러시아 내 북한 제품 유통 확대 등도 언급되어 관광을 중심으로 북러 교류의 다변화 조짐 - 교육, 보건, 재난관리 등 분야별 협력도 함께 진전 중이며,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 기반 강화 추세
5월 23일	Russian oil streams into North Korea's main port amid cooperation in Ukraine	- 2025년 1~5월 위성영상 분석에 따르면, 북한 서해안 남포항에 러시아산 석유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유조선이 꾸준히 입항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군사 지원에 대한 대가로 해석 - AI 기반 선박 추적 결과, 남포항에는 20척 이상의 유조선이 반복적으로 입항 중이며, 이와 동시에 신규 유류 저장시설 건설 및 기존 시설 개보수도 진행 -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연간 정제유 수입 상한(50만 배럴)을 명백히 초과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재 체제 붕괴와 북러 밀착의 실질적 효과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 실제 연료 수급 안정과 지방 발전20×10 전략 추진을 통해 경제 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석유는 군사용으로도 전용 되는 정황도 존재 - 남포항에서는 석유 외에도 중국과의 식량·섬유·가발·석탄 교역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석탄 수출 전용 부두는 지속적인 운항 데이터와 위성 추적으로 중국 다렌, 룡커우 등 주요 항만 과 연계된 것으로 분석 - 특히 석탄은 북한 외화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으로 써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의 재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북한의 제재 회피 전략이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
6월 17일	North Korea brings home the bacon with record pork imports from Russia	- 2025년 1~5월 동안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1,200톤, 약 93만 달러 규모의 돼지고기를 수입,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으며, 이는 2024년 전체 수입량(700톤)을 크게 상회하며, 북러 간 농축산물 교역 확대 흐름 - 러시아는 2025년 들어 총 1만 600톤 이상의 농산물을 북한에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으며, 농산물·연료 공급 확대에 힘입어 양국 교역액은 2024년에 3,4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2020년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러시아~북한 간 우편 서비스도 재개, 모스크바~평양 간 15일 이내 국제우편 배송체계가 복원 - 북러 양국은 향후 평양~모스크바 간 직통 열차 운행도 재개 예정으로, 농축산물 교역과 일상생활 기반 유통·물류 협력이 본격화 될 전망
6월 26일	Russian cargo ship implicated in arms smuggling returns to North Korean port	- 2025년 6월 23~24일,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무기 밀수에 연루된 러시아 화물선 레이디 알(Lady R)로 추정되는 선박이 북한 나선항에 재입항한 것으로 확인 - 이는 6월 1일 이후 약 3주 만의 재방문으로, 위성영상 분석에 따르면 북러 간 무기 밀수 교역이 감소 추세 속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 북한에서 러시아로 곡산(Koksan) 자주포, 다연장 로켓 시스템

보도 일자	제 목	내 용
		(MLRS), 포탄 등이 제공된 정황과 함께, 박격포 및 클러스터 탄 까지 러시아군에 공급된 사실이 텔레그램을 통해 영상 및 시각 자료 확인 - 나선항을 통한 러시아 석탄 환적은 2024년 4월 재개되었으나, 6월에는 선적된 물량이 없고, 5월에도 단 1건만 확인되는 등 관 련 물동량은 일시 감소세 추세 - 북한은 여전히 제재를 위반한 자원 수출을 진행 중이며, 최소 6척의 외국기 선박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를 끄고 운항 하는 방식으로 북한 철광석 및 석탄을 중국 항만으로 운송 중인 것이 식별